

리버럴아츠

제3권 1호

2023년 6월 30일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목 차

▮ 박일우 ▮

- 자유교육을 통한 학부 교육의 재정의 5
- 대학 소멸 위기의 근원적 해법

▮ 유지성 ▮

- 효능감, 그릿, 교사 관계가 중학교 1학년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31
: 교양교육 발전 방향 모색

▮ 윤소영 ▮

- 교양영어 토익수업 사례연구: 55
L2 화자의 문법적 오류 양상

▮ 임도한 ▮

- 대학 독서 교육용 한 쪽짜리 보고서 양식 연구 83

『리버럴아츠』(Liberal Arts)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103

『리버럴아츠』(Liberal Arts) 투고 규정 108

『리버럴아츠』(Liberal Arts) 원고 작성 방법 111

『리버럴아츠』(Liberal Arts) 연구윤리규정 118

자유교육을 통한 학부 교육의 재정의*

- 대학 소멸 위기의 근원적 해법

박일우**

- I. 들어가는 말
- II. 자유교육의 실체
- III. 자유교육의 새로운 사명
- IV. 학부 교육의 재정의
- V. 맺는말

■ 국문요약

대학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원인은 인구절벽, 수업료 동결, 경제침체만이 아니라 대학의 내부에도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하면서 자율성과 정체성을 상당 부분 포기하였다. 이 글은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야 하는 ‘파괴적 혁신’의 일환으로 학부 과정에서 자유교육의 수용을 통한 자유학예대학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자유교육은 오늘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다. 인공지능은 자유교육의 새로운 학습 대상이며 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생존과 진보를 위한 역량 함양은 자유교육에 내재 되어 있다. 개별 학문

* 이 글은 2023년 6월 17일 한국교양교육학회 춘계전국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칼리지, 명예교수, ilwoo@kmu.ac.kr

분야별로 만들어진 단과대학-학과라는 전통적 편제는 이제 그 효력을 다하였다. 학과·전공을 기초 행·재정 단위로 구성된 대학 편제를 기각하고 학부 교육을 자유교육으로 재정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부 과정이 담당 하였던 심화 수준의 전문·직업교육은 대학원의 학과·전공별 교육과정에 맡기는 것이 글로벌 차원의 추세이다.

모든 대학교가 혁신을 할 수 없다면, 우선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여 시범 자유학예대학을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학부 교육의 재정을 통해 대학의 소멸을 억제하고 건강한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학의 소멸, 자유교육, 자유교육의 효용성, 자유학예대학, 인공지능, 시민 교육

I. 들어가는 말

대학의 위기를 넘어서 대학 ‘소멸’의 단계가 시작되었다. 자극적인 제목을 단 관련 기사들이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¹⁾ 일반의 정서로는 마치 우리나라 대학 상당수가 불필요했던 기관들로 인식되는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대학의 소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넘어가는 중이다.

그런데 대학 소멸의 이유는 대학 밖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은 대학 안에서 끓아온 병변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지난 2~30년 동안 정부 재정지원이라는 생명유지 장치에 매달려 있었다.²⁾ 물론 인구

1) 예를 들어 <이게 대학인가요?... 20년 청춘 바친 교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조선일보, 2023. 4. 30.

2) 정부의 대학교 재정지원 사업의 효시는 1963년 ‘대학교수 및 대학부설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사업’이다. 1990년대는 사립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사업’이 있었으며, 2004~2007년에는 특수목적(선별)지원, 2008~2013년에는 포물러 편

절벽, 수업료 동결, 경제침체가 대학 소멸의 직접적 요인임은 사실이다. 이제 이런 식의 책임 전가도 한계에 도달하였다. 재정지원을 대가로 하는 각종 평가, 공모 규정에 맞추어 대학의 보유 역량과 무관하게 무리하여 편제와 교육과정을 뜯어 맞추기를 반복하다 보니 그 퇴적물이 독소가 되어 결국 때 이른 소멸을 재촉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은 근본적인 성찰을 할 여유도 없었으며,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제 커즈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이 다가온다.³⁾ 이 시점에서 대학 소멸의 근본적인 해법은 하나이다. ‘파괴적 혁신’이라도 동원하여 대학을 진정한 대학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서구는 물론, 글로벌 사회에서 수 천 년 전통에서 진행되었지만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우리나라에서만 무시되어 온 자유교육 liberal education⁴⁾의 전면적 도입이 그것이다. 향후 20~30년 동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별 대학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자유교육의 실체를 통시대, 공시대로 나누어 알아보고, 자유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입증하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시대적 맥락에 따른 자유교육의 새로운 사명을 제기하고 학부 교육을 재정

딩 방식을 도입한 취업률 중심 평가와 제재 기제로서 재정지원이 이어졌다. 2010년대 이후 대학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끈 사업으로는 대학 구조조정을 대가로 하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 ‘대학 인문 역량 강화사업(CORE)’,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등이 있었다. 2023년 상반기 현재, 대학은 2025년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과 이를 위한 ‘시범지역(2023~2024년) 운영’을 앞두고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 3) 특이점이란 문명의 미래 발전에서 가상 지점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미래에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변함으로써 그 영향이 넓어져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기점을 뜻한다(위키백과). 커즈와일은 2005년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되는 2040~50년대를 특이점으로 지목한다. 최근 ‘생명의 미래 연구소 Future of Life Institute’를 중심으로 글로벌 리더들이 ChatGPT의 GPT4 모델보다 더 강력한 인공지능 개발 노력을 6개월 정도 중단하자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으나, 한번 시작된 수직사업 모델의 매력에 촉발하는 인간의 탐욕이 억눌러질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 4) 미국 대학협회(AAC&U)는 자유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유교육은 일과 시민권, 삶에 필수적인 구체적 학습 성과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통합하고 학문 학습과 체험 학습의 통합을 촉진하는 학부 교육 접근법이다.”

의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전공·학과제 폐지와 그 대체 방안으로 학부 교육은 자유교육으로, 전문·직업교육은 대학원에서 시행하기를 제안할 것이다.

II. 자유교육의 실체

1. 자유교육의 통시대

자유교육은 자유시민이라면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기 위해 모종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리스·로마의 관념에서 자라났다. 그리스의 ‘파이데이아 *παιδεία*’는 실용적 기술이나 기능뿐 아니라 인간의 덕성을 개발하며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때 ‘자유민’이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여성, 노예, 노동자, 외국인들을 제외한 부자 혹은 실력자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으며⁵⁾,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웅변술을 필두로 하고, 지적 사고나 진리 추구,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한 전통적이며 귀족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주가 되었다. 카펠라는 자유학예교육의 일곱 가지 분야를 묘사하였다⁶⁾. 주지하듯, 이 가운데 ‘삼학 *trivium*’은 그리스 시대에 확립되어 로마에 전달된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영역인 논리학, 문법, 수사학이며 이들이 기초가 되어 물질세계를 이해하는 ‘4과, *quadrivium*’ 즉 산술, 음악, 기하학, 천문학이 그것이다. 로마의 키케로 Cicero 는 그리스의 파이데이아를 ‘후마니타스 *humanitas*’로 발전시켰다. 지식교육과 사고력, 의사소통, 정서·신체 교육이었던 파이데이아에 ‘인간다움에 대한 교육’이라는 뜻을 덧입힌 것이다. 후마니타스는 지식을 배우

5) 신분제가 제도적으로는 소멸된 오늘날, 세계 시민은 모두 ‘자유인’이며, 자유교육은 모든 문명사회의 시민에게 필수적인 교육이 되었다.

6) *De nuptiis Philologiae et Mercurii (On the Marriage of Philology and Mercury)*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이 책은 전형적인 알레고리 형식을 가진다. ‘Philologiae’, 즉 ‘진리를 사랑하는’이라는 이름의 여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신인 머큐리의 결혼식에 일곱 하녀가 등장한다. 이것이 자유학예 교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수영(2020)은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혜를 기르고, 인간다움을 가르치며,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다.

서구에서 자유교육은 중세에서 체계화되어 지리적 발견, 종교개혁, 계몽주의, 혁명, 산업화와 같은 변곡점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이어졌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대학이 급증하면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술 관련 학문이 자유학예와 과학교육 과정과 혼합되었다. 자유교육의 전통은 유럽 대학교들이 대부분 단일 주제, 예를 들어 수학, 역사 혹은 예술에 전문화된 모델을 선택하면서 스러졌다. 19세기 들어 독일의 연구 중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은 더욱 단일 학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남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고등교육이 오늘날까지도 대부분 이러한 단일 학문 트랙을 따른다.

고등교육에서 학제적 자유교육의 전통이 다시 주요 양상으로 대두된 것은 미국에서이다. 자유교육의 이념은 식민지 대학에서부터 채택되어 많은 민주적 수칙들을 제공함으로써 독립 공화국이 “더 완전한 연합”을 만들도록 촉구하였다. 하버드 대학(1636)을 비롯한 초기 대학들은 자유로운 사상과 토론의 이념에 근거한 모델을 따랐다. 1828년 예일보고서는 미국 특유의 고등교육 이념을 표명하는 선언으로 시작하면서 폭과 깊이를 가진 교육과정을 가지는 자유교육은 학생들이 특정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준비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점을 부각한다.

지적 문화에서 얻어야 할 두 가지 요점은 정신의 훈육 discipline 과 채비 furniture 이다. 그 위력을 확장하고 이를 지식으로 강하게 하면서 말이다.

(Marber 2017, 3에서 재인용)

예일보고서는 최고의 선을 추구한다는 자유교육의 의도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앞 시대에서 형성되어 온 자유교육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맥락을 상세히 규정한다. 학습 영역은 인간의 전체 지식을 망라하지만, 이는 특정 분야의 입문 수준이 아니라 학제적 접근을 지향하며, 더 나아가 인격의 완성과 지적 발달의 균형을 추구한다. 이 모든 것들이 미국 모든

대학에서 학부 과정의 목표이며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완전한 교육의 기초를 깔려면 중요한 ‘모든’ 정신 능력들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한두 가지만 배양되고 다른 것들은 무시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Marber 2017, 3에서 재인용)

미국 고등교육의 성공이 단순히 원칙의 천명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모릴 법 Morrill Act’은 “다양한 직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 계급을 대상으로 자유교육과 전문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주마다 하나의 대학에 토지를 부여하는 법으로 미국 교육을 더 넓은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연결해 주었다. 이 법은 <버니바 부시 Vannevar Bush 보고서 - 과학, 끊임없는 전선>(1945)으로 이어져 기초연구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면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특유의 기부 문화 역시 미국 초기 대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예를 들어 1636년 Massachusetts General Court(식민지 인종 회사 지배기구) 지원으로 설립된 칼리지는 3년 후 기부자 이름을 따 Harvard College로 발전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2. 자유교육의 공시대

글로벌 시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외에도 남미,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의 앞서 나가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자유교육을 도입하였거나 하는 중이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이전의 고등교육 체계가 단일 학문 학위로 이루어진 곳에서도 일부 자유학예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혁신과 비판적 사고를 제고한다. 『글로벌 시대 자유학예의 발전』(Marber·Araya, 2017)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유교육에 종사하는 정책전문가와 교육

담당자들의 육성을 실었다.

벤데 Marijk van der Wende 는 최근 유럽에서 자유교육의 재 도래를 다룬다. 유럽의 고등교육은 국가 기관과 단일 학문 과정에 국한되었으며 공공 재정, 대규모, 평등주의에 입각한 체계는 20세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21세기 지식 경제에 대비하는 졸업생들을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벤데 는 조기에 시작하고 지나치게 전문화하는 고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엄선된 엘리트 교육을 모색하는 암스테르담 학부대학 Amsterdam University College의 사례를 보인다. 탄 Charlene Tan은 싱가포르의 Yale-NUS College 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에 관한 다양한 개념과 이해를 확인한다. Yale-NUS College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지 않으며 비판적 사고는 대립적 속성을 가진다고 보는 데 비해, 이 대학을 지지 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는 아시아의 역사적 실체와 한계 가운데 있으며, 비판적 사고도 문화적으로 매립되어 있고 여기에 협조적이라 본다.⁷⁾ 누리 Neema Noori는 중동에서 그 증거들을 탐색한다. 18세기를 전후하여 형성된 이 지역의 국가들은 서로 다른 경제·정치 체계, 역사· 사회적 균형을 가지지만 공통적 주제가 제기되었다. 젊은 인구와 중류 계층의 성장세가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많은 고등교육 기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리퍼드 Grant Liford는 아프리카의 자유교육 발전과정을 조사한다. 그는 유럽 식민지 유산이 아프리카 사회와 교육기관에 걸쳐 자유교육과 연관된 총체적 고등교육 모델을 촉진했다고 본다.⁸⁾

3. 자유교육의 가시적 성과

자유교육은 정의 자체가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굳이 자유교

7) 주지하듯 이 대학은 2021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였으며 2025년에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University Scholars Programme (USP)와 합쳐진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언급한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박일우(2021) 참조.

8)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각 지역의 자유교육 현황을 조사한 『글로벌 시대 자유학예의 발전』에서 대한민국은 아예 대상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말하는 ‘교양교육’은 글로벌 차원에서 인정하는 ‘자유교육’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육의 경제적 이익, 자유교육에 지원하고자 하는 신입생, 부모들의 현실적인 동기를 논의하자면, 자유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높은 평생 소득을 얻는다는 실증적 증거는 넘쳐난다. 그 가운데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사례 1.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교육과 인력 센터’ Center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사이트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인다.

자유학예대학의 ‘투자 대 비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 (ROI)’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추가되면서 자유학예대학의 평균 ROI가 모든 칼리지의 평균 ROI보다 거의 20만 달러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유학예대학 출신 40년 평균 ROI (91만 8천 달러)는 4년제 공대 및 기술 관련 학교 (91만 7천 달러), 4년제 경영대학원 (91만 3천 달러)에 근접한다.

사례 2. 뉴욕타임즈 기자이며 풀리처 수상자인 앤더슨은 자유교육 졸업생들을 종단조사하여 그들의 평생 수입이 컴퓨터공학, 경영학 전공자들보다 많음을 밝혔다(Anderson, G. 2019).

사례 3. 경제학자인 최강식 외는 최근의 연구에서 교양교육과 임금의 관계가 긍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최강식·박철성, 2023).

물론 자유교육을 경제적 효율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유교육의 진정한 성과, 혹은 효용성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세상,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적응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추게 하고 “만능의 열쇠를 손에 쥐어주는” 것(최재천, 2015)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시민의식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테트와일러는 최근의 저서 『자유학예가 필요로 하는 증거 *The Evidence Liberal Arts Needs*』에서 자유교육이 성공, 리더십, 이타주의,

학습, 평생 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면서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네 가지 핵심 결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Detweiler, 2021; 223-228)

- 목표: 자유(학예)교육은 일생동안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더 높고 더 공적 성격의 선에 종사한다.
- 내용: 자유(학예)교육은 인간 지식의 모든 영역의 연구와 다양한 지식 범주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대한 통찰을 요구한다.
- 맥락: 자유(학예)교육은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강력한 환경을 요구한다. 자유교육은 지적, 개인적, 감정적 참여 경험을 통해 일어난다.
- 교육 생태계: 더 높은 공공선이라는 목표는 자유(학예)교육의 맥락 가운데서 자유(학예)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충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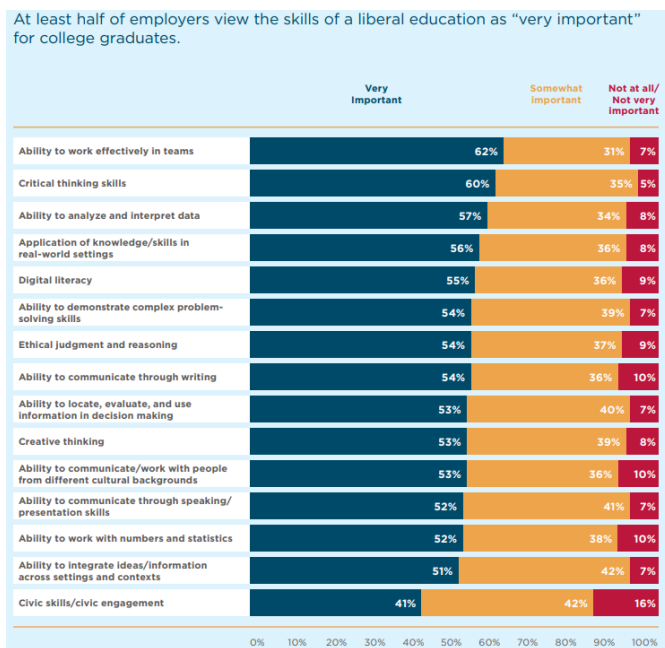
III. 자유교육의 새로운 사명

1. 새로운 자유교육

이른바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이분법은 해묵은 이슈이다. 그러나 자유교육의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이러한 논쟁은 오래전에 해소되었다. 예를 들어 밀 J. S. Mill은 이미 1867년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총장 취임사에서 대학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밝혔다.

대학의 목적은 썩서 좋은 법률가, 의사,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
능성 있으며 교양 있는 인간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 전공 분야가 무엇

이든 (...) 그 지식을 지혜롭고 양심적으로 사용하는가 혹은 그 반대인가의 여부는 전공 분야를 배운 방식이 아니라, 교육의 일반 시스템이 개발한 어떤 종류의 지식을 어떤 마음과 의식에 가져다주었나에 달려 있습니다. (...) 전문 공부를 한 사람이 대학교를 떠날 때 가져가야 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그 전문 지식의 올바른 사용을 지도하고 특정 분야를 비추는 일반 문화의 빛이어야 합니다.(박일우 외, 근간)



<그림 1> 고용주가 본 대학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

<https://dgmg81phvh63.cloudfront.net/content/user-photos/Research/PDFs/AACUEmployerReport2021.pdf>

교육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볼 때, 대학의 존재 이유는 교육을 통한 인간의 완성에 있었다. 자유교육의 역사가 곧 교육의 역사였다. 그런데 자유교육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 목표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고 덧붙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여타 역량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대학 졸업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취업이라 국한하더라도, 미국 대학 협의회가 발표한 최근 조사 결과(<그림> 1)에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대학 졸업생들의 역량 항목 가운데서 ‘전공지식’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으며, 고용주 50% 이상이 “자유교육에서 얻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⁹⁾ 실은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오늘날과 내일의 인간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자유교육이 추구하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소통과 공감, 협업 능력은 인공지능의 도전에 맞선 지금, 더욱더 그 가치를 더 한다.

2. 인공지능의 도전과 응전

디지털이 추동하는 기술혁명(…) 배려나 염려와 같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이타적이고 공생적인 나눔의 새로운 경제체제와 사회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타자성, 신뢰, 나눔, 배려, 환대, 공감과 같은 인간적 가치와 정서적 교응은 이타적이고 공생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윤리 의식이다.

(김동윤, 2023:12)

인공지능의 발견과 발전의 함의는 언어의 발견에 비견할 만하다. 인간 언어와 같은 새로운 언어가 비유기체에 의해 수행될 때 그것은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만들고,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시점에서 인공지능은 자유교육의 새로운 학습 대상이며 동시에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요컨대 인공지능이 진화하면 할수록 인간도 진화하여야 한다. 이 새로운 임무는 기존의 특정 학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교육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자유교육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해 나갈 절호의 기회를 인공지능에서 얻었다.

9) 우리나라 기업은 여전히 대졸 신입사원 모집에서 전공 여부와 이수 학점을 따지고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전공’자가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조사 연구를 접할 수는 없다. 첨단분야 졸업생이 입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전공을 살려” 그 직무에 남아 있는지, 직무 성격이 시스템 오퍼레이터를 넘어선 수준을 넘어서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3. 시민교육

자유교육은 학문 발전에 따라 성립된 기초학문 분화에 더해, 인공지능과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집단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즉 ‘시민교육 Civic Education’을 주요 의제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의 자유교육이 노동할 필요가 없었던 ‘자유 시민’의 필수 과정이었다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시민은 “노동하는” 자유 시민이며, 오늘날의 자유교육은 이들 모두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누스바움은 시민교육과 자유교육의 관계를 위한 이론적 바탕을 낳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인성 함양 Cultivating Humanity』에서¹⁰⁾ 민주주의의 생존과 진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역량, 즉 소크라테스 식의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인간 상호 연결의 이해, 내러티브적 상상력을 꼽았다. 이 역량은 앞에서 논의한 자유교육에 내재되어 있으며, 반대로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자유교육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노력이 있었다(교육부, 2022). 누스바움은 “글로벌 연결 시대의 시민교육”이라는 글에서 시민교육과 자유교육의 이상과 방법이 결합 되는 생생한 사례를 소개한다.

밝게 불이 켜진 한 세미나실에 젊은 교수들 한 그룹이(...) 한 달 동안 케냐를 방문하여 아프리카 촌락을 연구하였던 일을 두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들은(...) 영양, 일부다처제, 에이즈, 그 외 많은 것에 대한 지역의 논쟁에 참여하였는데 이제 그 경험을 미술사, 철학, 종교, 여성학 등의 교과

10) 이 책의 원제목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은 국내에서 “인간성 수업 : 새로운 전인교육을 위한 고전의 변론”으로 번역되었다. 이를 자유학예교육 이론의 맥락에 맞게 번역하면 “인성 함양 : 자유교육의 개혁을 위한 고전적 변호”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사례는 개별 학문 가운데에서 다국가,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다양한 사회의 시민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고등교육 현장의 교육에 활용할 방법을 자유교육의 틀에서 찾아보라는 누스바움의 권유로 읽힌다.

IV. 학부 교육의 재정의

1. 전공·학과제 폐지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학과제의 폐단을 매우 조심스럽게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박병철은 전공선택제와 유연학기제 등 학사제도 유연화를 골자로 한 2017년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입학 단위 없이 모집하는 무전공제나 단과대학 별로 모집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의 결정은 대학 자율권에 속하기 때문에 제도화가 쉬운 일은 아니며”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다음으로 무슨 과를 다니는가라는 물음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박병철, 2019:175). 그런데 이제 그 학과가 차례로 문을 닫는 현상이 도래하였다. 종합대학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단과대학-학과라는 전통적 편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농경사회 특유의 ‘우리끼리’ 의식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학과·전공제는 대학이 대학다움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요소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공·취업 분야 일치도는 50%로,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낮다. 그나마 50%라는 수치도 2020년 조사 결과로, 2020년 이후에는 같은 조사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수치도 특히 지방·사립·인문

계열 졸업생이나 교수로서는 실감하기 어렵지만 여기에 대학원까지 포함한 취업률(<그림 2>)을 곱하면 결과는 심각해진다. 대학, 대학원 졸업자를 망라하여 30%도 정도만 “전공을 살려 취업”한다면 나머지 70%는 왜 그 전공·학과를 찾았는가? 이럴 바에야 ‘전공’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은가? 어차피 전공/타전공의 기여는 반반이니, 각종 관변단체에서 대안이라고 내세우는 “전공 선택의 벽을 낮추는” 것보다는 아예 허물어 버리고, 학과라는 오래된 “교수들의 帝國”을 거두기라도 하자는 것이다. 학과제도가 유럽 대학교들의 단일 주제, 즉 학문별로 전문화된 모델에서 나왔다면, 학문의 발전과 이 합집산이 더욱 가속화되는 시대에 특정 학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과제는 고등교육의 발전에 장애물로 남게 된다.

(단위: %, %p)

구분	전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2021(A)	67.7	58.2	63.9	63.0	69.9	65.0	82.1	66.6
2020(B)	65.1	53.5	60.9	62.1	67.7	62.3	82.1	62.2
증감(A-B)	2.6	4.7	3.0	0.9	2.2	2.7	0.0	4.4

<그림 2> 계열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상황, KEDI, 2021.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7>

2. 학부교육의 재정의

대학의 소멸은 기정사실이며 배워야 할 지식은 폭증한다. 이런 시점에서 대학은 “배우기”를 멈추고 “배우기를 배우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적어도 고등교육에서의 학부 undergraduate 과정에서는 자유학예 liberal arts¹¹⁾가 전격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자유학예, 혹은 ‘기초학문’에 덧붙여 새로 대두되는 다양한 지식체계들을 협량한 학과·전공의 틀에서 벗어나 습득하도록 한다면 그 프레임은 ‘자유학예대학 liberal arts college’, 즉 자유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자유학예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단설 대학, 혹은

11) 자유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전통적 3학(문법, 수사학, 논리학)과 4과(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과 학문의 분화 발전과정에서 대두된 인문학, 사회과학뿐 아니라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을 포함한다.

대학교 산하의 독립 단과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코 대학의 종언이 아니라 부활이며, 전통과 정통으로의 회귀이다. 대학이 다시 대학다워지는 것이다.

신입생을 유치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첨단, 융합학문의 이름을 외피로 둘러쓴 학부 과정 학과·전공일수록 교육과정과 교수의 역량이 여전히 이전의 것을 넘어서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¹²⁾ 학부에서의 교육과정으로 ‘첨단’, ‘혁신’을 표방하는 눈가림은 그만둘 때가 되었다. 학부 교육의 목표는 ‘첨단’이 아니라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학문 선진국에서 전통적으로 인기 학부였던 의학, 법학은 전문대학원으로 진작 옮겨갔다. 첨단 기술, 공학 분야는 물론, 심지어 심화 차원의 기초학문은 대학원 과정이나 별도의 ‘스쿨 school’에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속한 대부분의 대학교와 기타 우수 대학교가 그러하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는 자유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12개의 ‘스쿨’로 구성되어있다(<그림 3>). 또 다른 사례로, 프랑스는 첨단학문 심화 연구와 교육은 대학교 universit , 그랑제콜 grand  cole, 그랑데타블리스망 grande  tablissement 과, 나아가 그들의 연합체가 담당한 지 오래되었다. 예를 들어 ‘파리인문사회대학교 Universit  Paris Sciences et Lettres, PSL’는 파리 도심에 위치한 콜레주 드 프랑스 Coll ge de



<그림 3> 하버드 대학교 편제

<https://orgs.law.harvard.edu/studentgovernment/harvard-graduate-council/>

12) 신입생, 부모, 교사들은 오히려 이런 생소한 학과명에 두려움을 느껴 입학할 망설이고, 교육과정의 실체를 알면 실망한다. 탄탄한 종합병원을 재단에 두고 바이오 분야를 특색화한 지방의 모 종합대학교에서 막상 첨단 바이오 분야 학부, 학과에서 가장 심각한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충격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반면, 최근 국내에서 불어닥치는 “초등학교부터 의과대학을”이라는 풍조는 고등교육의 진행 과정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의사의 역할은 제일 먼저 인공지능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초등학교부터 의과대학을 준비하는 미래의 의대생들은 막상 그때가 되면 아마도 인공지능 시스템 오퍼레이터 역할에 만족하는 ‘기능공’이 되어 있을 것이다.

France, 국립사범학교 Ecole Normale Supérieure, 고등교육 실습원 Ecole pratique des Hautes Etudes, 파리 도핀 대학교 Université Paris Daupine, 퀴리 연구소 Insitut Curie 등 가장 경쟁력을 갖춘 연구·교육기관들의 유기적 조직으로 인문, 사회, 자연, 공학의 최첨단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편제가 학부 과정과 그 이상의 연구·교육 편제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내 학부 과정은 온전히 자유교육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존재 이유를 충족한다. 자유교육은 대학원 교육의 준비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3. 자유교육 운영의 원칙

1) 자유학예대학 설치에 관한 기존 논의

교육은 공공재이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학계에서는 국립 자유학예대학 설치의 논의가 있었다. 백승수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 국가 전략 분야 연구,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발전 선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상기하면서 “기초학문 육성을 통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립 자유학예대학을 신설”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백승수, 2018). 이 주장은 두 가지 문제를 노정한다. 첫째, 우리나라 국립대학교는 기초학문의 인적지원과 인프라를 그나마 확보하면서도 소위 “교양교육”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특히 2000년 초반 CORE 사업을 앞두고 많은 대학이 명목상으로나마 교양교육 전담 학부, 대학을 만들 때도 국립대학은 요지부동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당분간은 소멸의 과정을 유예받은 국립대학교가 파괴적 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백승수의 주장 가운데서 언급한 “교양교육 general education”은 자유교육과 다르다.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을 상호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고등교육 과정의 일부이며, 자유교육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교육 기반의 교육과정에서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구별은 없다.

박병철의 논의는 현실적이면서 좀 더 신중하다. 그러나 “리버럴아츠칼리지 설립은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놓고 리버럴아츠 교육이 자리 잡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단 할 수 있는 일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박병철, 2019: 174)라는 그의 진단은 더 이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한 편, “지방 사립대”를 자유학예대학으로 전면 재편하고 “지방” 국립대는 학부 폐지 후 대학원 과정 체제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표출되었다(대학지성 In & Out, 2021. 06. 10).¹³⁾ 이 주장은 결과적으로는 이 글의 논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 주장이 ‘위기에 빠진 대학 체제 대전환’이라는 맥락에서 발표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자유학예대학으로의 전환을 “지방·사립”이라는 특정 그룹을 전제함으로써 마치 한계 대학에 마지막 회생 기회라도 베풀자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고등교육에서 자유교육이 가지는 위상과 현황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한계 대학에 자유교육 라이선스를 준다는 것이 결코 손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불행히도 대학 소멸의 바이러스는 수도권에도 급속히 전파되고 있으며, 신입생 유치를 위해 ‘국립’이라는 단어를 교명 앞에 붙이려는 안타까운 노력을 하는 국립대학교들이 나타나는 데서 보듯, 이제는 국립대학교마저도 소멸의 위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UNN, 2023. 04. 10). 자유교육은 국립·사립, 수도권·지방 대학의 구별 없이 고등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수용할 때, 기존 학과·전공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파괴적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2) 자유학예대학의 운영 원칙

자유학예대학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모든 대학교가 일시에 혁신을 할 수 없다면, 우선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여 시범 자유학예대학을 권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¹⁴⁾ 자유학예대학 운영 원칙은 다음

13) 따옴표는 필자

14) 역대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교를 광역권으로 나누고 각 광역권에서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때로는 이 광역권의

과 같다:

- 설립 주체는 반드시 기존 대학교, 특히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일 필요는 없다. 기존 대학, 신규대학, 국·공·사립, 수도권·비수도권의 구별 없이 자유교육을 잘 이해하는 구성원들의 합의와 거버넌스, 그리고 교육 당국의 인가 절차를 통과하면 가능하다. 최근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태재대학교’ 법인 설립, 대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인가는 교육 당국이 다양한 대학 생태계에 관심을 보여준 고무적인 사실이다. 혁신대학 설립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움직임이 자유학예대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주제	인문·예술	사회과학	수학 및 자연과학
인간 본질	인간의 본성(이성, 감정, 윤리, 미의식, 욕망)		
인간 행위	언어, 기억, 감정, 예술, 믿음(종교)		
삶과 생명의 터전	인간과 생명체의 터전(자연, 공동체, 민족, 국가, 역사, 지리, 규범)		
삶의 방식	문화와 관습, 정치체제, 경제체제, 금기와 가치, 미적 향수		
자연의 본질	시간과 공간, 물질과 생명에 대한 인문·예술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상상, 탐구 및 그 한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수학을 포함, 자연 탐구 및 자연의 가치 설정		

<그림 4> 학문분류와 주제 분류의 연계

https://www.konige.kr/data/general_edu.php

- 교육과정은 “모든 것을 다루되 결합기식”이라는 약점을 가지는 배분이 수 원칙을 탈피하여 주제 중심 접근 원칙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교양교육과 기초학문교육을 망라하는 교육과정

구획 자체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접근은 광역권 내에서 모범 사례를 생산하였고 인근의 대학들이 이를 벤치마킹하는 효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범 자유학예대학 역시 먼저 광역권별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모델을 제안하면서 주제중심형 자유학예 교육과정의 예시를 들었다. 이 가운데서 학문분류와 주제 분류의 연계 방식(<그림 4>)이 자유교육의 본질 중 하나인 학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학예 교육과정의 핵심 교과는 기존의 전공 과정에 준하는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핵심 교과의 내용은 대학 입시 준비 과정으로 전략한 중등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중등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가져오게 하여야 한다.
- 자유학예대학 졸업생의 학위증에 전공 분야는 명시되지 않는다. 다만 재학 동안 개인의 선호와 적성에 따른 교과군의 선택이 있었고 거기에서 취득한 학점이 소정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하버드 대학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집중 concentration’ 영역을 표기할 수 있다.
- 새로운 자유학예대학은 소멸 대학의 인프라를 수용함으로써 설립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천문학적 재원이 투입된 캠퍼스가 폐허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 투입된 세금과 함께 국가적 낭비이다.
- 자유학예대학은 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종합대학교의 학부 과정을 대신한다. 즉, 신입생 모집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교수이다. 그동안 기초학문이 무너지면서 이를 담당하던 교수자원 중 일부는 교양교육을 마치 최후의 도피처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학부 과정이 자유교육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때, 기존의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원칙이 있다. 전공·학과라는 편제에서 여전히 “내 교과목”, “내 학생”에 연연하는 교원들은 퇴출되거나, 자유교육의 역사와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사’로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대학의 소멸이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대학의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며 교육정책 역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논의가 불필요한 당위이다. 그럼에도 이 당위를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제안은 별무한 실정이다. 이 글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으로 나누어진 고등교육의 편제에서 학부 과정의 교육 내용은 자유교육으로 회귀하고 편제는 자유학예대학을 지향하자는 논리를 개진하였다.

자유교육의 통시태는 교육의 내용이 시대적 맥락에 따라 스스로 진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자유교육의 공시태는 종주국이라 할 만한 미국에서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명시적인 자유교육이 자유학예대학의 틀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우리나라에서 자유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구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학예대학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학부 교육의 목표와 범위가 왜곡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학문의 발전과 시대적 맥락에서 전공·학과제 위주의 학부 교육 프레임은 효력을 다 했으며, 결과적으로 대학 소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전공영역과 일자리의 일치 여부는 미미하며, 반대로 자유교육의 생산성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음이 여러 경로에서 입증되었다. 학부 교육과정에서는 전공·학과의 장벽을 낮추는 데서 더 나아가야 전공·학과를 폐지하고 자유교육을 도입하여야 한다. 세부 영역의 심화를 통한 전문·직업 훈련은 대학원 과정에서 진행하는 보편적 모델에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랜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실상 소멸이 다한 교육기관들도 이런저런 정부 재정지원에 매달려서 근근이 연명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 중인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것

을 골자로 한다. 거기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방대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언뜻 보면 무너져 가는 지역 대학을 살리는 새로운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내는 중앙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대학’으로 2026년 30개 대학을 선정한다는 것도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다. 당장 2023년 ‘시범대학’ 선정이 5개교에서 7개교로 늘어난 데서 보이듯, 2026년에 탈락하는 대학들은 필사적으로 2차, 3차 선정을 요구할 것이며, 선정된 대학들도 그동안의 습성대로 ‘이행 목표’를 각종 보고서에서나 달성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폐습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가?

한정된 자원은 한정된 곳에 써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았듯, “대학을 대학으로 되돌려 놓는” 사업에 천문학적 교육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질 대학은 퇴적물 없이 산뜻하게 출발하여 지원 받은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고, 인공지능을 능가하면서 진정 역사를 만들어갈 인재들의 산실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윤, 2023, 「디지털과 윤리: 인공지능은 인간을 닮는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윤리의 새로운 지평』, 디지털소사이어티 디지털문화위원회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9-13.
- 레이 커즈와일 저, 2007, 김명남·장시형 옮김,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 박병철, 2019, 「리버럴아츠 교육과 한국의 교양교육」, 『교양교육연구』, 제13집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163-180.
- 박일우 외 편역, 근간, 『자유교육의 전개_영국편』, 교양교육총서 2, 리버럴아츠.
- 백승수, 2018, 「국립 리버럴아츠칼리지 설립의 교육적 타당성 고찰」, 『교양교육연구』, 제12집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163-180.
- 윤우섭, 2021, 「위기의 대학, 교양교육」,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기초강연
- 이수연, 2017, 「대학 재정지원 정책 평가와 대안」, 『대학과 정책』1, 대학교육연구소, 125-148.
- 최강식·박철성, 2023, 「교양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개인의 임금과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제17집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11-22.
- 한수영, 2021, 「자유교육은 어떻게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자유교육 옹호를 위한 역량기반자유교육의 역사적 검토」, 『교양교육연구』, 제15집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11-22.
- 홍석민, 2021, 「교양교육에 남긴 1828 예일보고서(The Yale Report of 1828)의 유산」, 『교양교육연구』, 제15집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3-40.
- Anderson, G., 2019, *You Can Do Anything - The Surprising Power of a "Useless" Liberal Arts Education*, New York: Back Bay Books.
- Dewey, J., 2011, *The Evidence Liberal Arts Needs: Lives of Consequence, Inquiry, and Accomplishment*,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arber, P., D. Araya eds. 2017, *Liberal Arts in the Global Age*, New York: Routledge.
- <교실에서 만나는 민주시민교육>, 교육부, 2022. 4. 13. <https://if-blog.tistory.com/13182>.(검색일 : 2023. 04. 15)

<대학은 사라질 것인가?>, 최재천(2015), KBS 1 TV <명견만리>, <https://www.youtube.com/watch?v=bBVUTXeQDrQ>(검색일 : 2023. 04. 15)

<비수도권 소재 13개 국립대, 교명 앞에 ‘국립’ 붙인다>, UNN, 2023. 04. 10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4778>(검색일 : 2023. 04. 15)

<위기의 대학...대학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구조는?>, 대학지성 In & Out, 2021. 06. 10,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1>(검색일 : 2023. 04. 15)

<이제 대학인가요?... 20년 청춘 바친 교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조선일보, 2023. 4. 30.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3/04/29/V3ZS57VGFRC4RFTUHK46GXIXXU/>, 2023년(검색일 : 2023. 04. 30)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KDI Focus, 2020. 06. 09,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6623&media=poplink (검색일 : 2023. 04. 15)

<지난해 대학·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67.7%...월 평균 275만원 벌어>, 대학지성 In & Out, 2022. 12. 27,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7> (검색일 : 2023. 04. 15)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https://www.konige.kr/data/general_edu.php(검색일 : 2023. 04. 15)

<How College Contributes to Workforce Success: Employer Views on What Matters Most> <https://www.aacu.org/research/how-college-contributes-to-workforce-success> (검색일 : 2023. 04. 15)

<Ranking ROI Of 4,500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Center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 <https://cew.georgetown.edu/cew-reports/CollegeROI/>(검색일 : 2023. 04. 15)

<What is Liberal Education>, <https://www.aacu.org/trending-topics/what-is-liberal-education>(검색일 : 2023. 04. 15)

Redefining Undergraduate Education Solutions to the University Extinction Crisis

Park, Il-Woo
(Keimyung University)

The university began to disappear. The cause was not only the population cliff, the freezing of tuition fees, and the economic downturn, but also the inside of the university. Korean universities gave up their autonomy and identity while relying o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s. This article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liber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courses as part of a ‘destructive innovation’ that can make universities more like universities.

Liberal education, which began in Greece, is given a new mission today.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new learning object of liberal education, and the cultivation of capacity for the survival and progress of democracy pursued in civic education is inherent in liberal education. The traditional organiz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created by individual academic fields no longer takes effect. Now, the university system consisting of basic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units for departments and majors should be dismissed and undergraduate education should be redefined as liberal education. It is a global trend to entrust professional vocational education to the curriculum of each department and major of graduate school based on solid liberal education.

If all universities cannot innovate, the government should first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establish pilot liberal art colleges by region. Through the redefinition of undergraduate education, it will be possible to suppress the disappearance of universities and continue the ecosystem of healthy higher education.

Keyword ● disappearance of universities, liberal education, utility of liberal education, liberal arts college, artificial intelligence, civic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23. 06. 07. ▮ 심사완료일 : 2023. 06. 18. ▮ 게재확정일 : 2023. 06. 19.

효능감, 그릿, 교사 관계가 중학교 1학년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 교양교육 발전 방향 모색

유지성*

1. 서론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논의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년의 중학교 1학년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정 배경을 통제 변수로 하고 자기효능감, 그릿, 교사관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 그릿, 교사관계, 가정 배경의 세부 문항과 학업 성취도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학업 성취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토대로 교양 교육에 방향에 대해서 교육적 함의를 제공한다.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대학 조교수 jisyoo@kku.ac.kr

1. 서론

청소년이나 대학생이나 기초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특히 기초교육을 위해 교양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미국 어느 대학의 벽에는 ‘지식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지식은 인간을 부자로 만든다거나 유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교양이 쌓이면 인간은 스스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교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힘이므로, 기초적 교양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김택천, 2013). 이렇듯 자아를 탐색하고, 계발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삶의 목표를 계획, 실천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양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아를 탐색, 계발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삶의 목표를 계획, 실천하는 시기로서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업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학업에 투자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 학업, 즉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학업 성취도는 진급과 진학, 졸업, 그리고 취업 등 각종 선발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평가 기준이다. 이것은 개인의 총체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사회적 지위, 더 나아가 한 개인의 미래를 결정할 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에 학업 성취도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김성양, 조규판, 2018). 학업성취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수준의 경우, 성별, 능력, 가정 배경, 가족 구조, 부모의 기대 교육 수준, 사교육 참여, 부모, 교사, 교우와의 관계, 학습 태도 등이 학업성취에의 영향 요인들로 주로 제

시되고 있다(장희원, 김경근, 2015). 물론, 학생들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지역사회와 학교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은 열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원하는 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현황 및 필요 요건 등을 확인하고 학교와 가정의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성기선, 2010).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새로운 발달 단계 및 환경으로 갓 넘어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자기효능감, 그릿(Grit), 교사관계, 그리고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가정 배경 변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기 효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성취한다는 데 대한 개인적인 신념인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임효진, 이지은, 2016).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2015)는 중학교 1학년 대상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특히 자기효능감 중에서 자기 조절학습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김현진(2013)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국어와 수학 성취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어와 비교하여 수학의 경우, 특히 학생들은 수학에 대해 효능 기대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성취도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수학과 같은 과목은 내용이 심화될수록 어렵게 느껴지고 포기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는데, 이때 자기효능감이 더 나은 성취 결과로 이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임효진·이지은(2016)은 중학생 대상 분석 연구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사들의 수업 능력을 좋게 인식할 때 영어, 수학 과목에서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후의 자기효능감도 점차적으로 높아졌고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의 성장 요인들은 교과에 따라 상이한 관계 패턴을 나타냈다.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이 이후의 성적 향상 정도도 빨랐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있어 빠른 변화를 보이는 학생은 성취도의 향상이 빨랐으나 수학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이숙정·김희란·모화숙(2018)은 중학생 대상 분석 연구를 통해 동일 교과 내에서는 국어, 수학 교과의 학업 성취도와 자기효능감 간의 정적인 상보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 즉, 동일 교과 내에서 이전 해의 학업 성취도가 다음 해의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전 해의 자기효능감은 다음 해의 학업 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또는 이전의 자기효능감이 이후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낮은 학년의 청소년일수록 초기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유념하고 교육적으로 적용해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김복권(2017)은 고등학생의 수학 성취가 상 수준인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수학 학업 성취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전체 집단과 상 수준 집단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수학 학업 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주영주·서혁·윤성혜(2017)는 고등학생 대상 분석 연구에서 국어 교과 효능감이 국어 교과의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시기적으로 진로 및 진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주요 교과목에서 쌓아온 효능감과 성취도 간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해당 교과에 대해 학생이 형성하고 있는 효능감이 성취도에 유의하게 작용하고 또한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자신의 효능감을 바탕으로 성취도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선순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중·고등학생에게 있어 학업성취의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이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 피드백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임효진·이지은, 2016).

다음으로,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성, 열정을 의미하는 그것

(grit)은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이정림, 권대훈, 2016). 그것은 목표 수행에 대한 관심 여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관심의 지속성, 지속적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내재적인 동기, 끈기와 같은 기존의 학습자 변인과는 구분된다(심미연·황명환, 2019).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그릿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있다. 대체로 고등학생은 다른 시기에 비해 학업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서의 성취에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의미하는 그릿이 뒷받침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호·황명환(2019)은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부모의 학업 관여와 그릿이 영어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한다고 하였다. 또한 심미연·황명환(2019)의 연구도 동일 대상에 대해 그릿이 학습자의 영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볼 때, 그릿의 주요 속성인 관심의 지속성, 꾸준한 노력은 학습자들의 학습 수행에 있어 큰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다 심화된 학습 수준이 요구되는 고등학생에게 있어 영어와 같은 주요 교과에서의 성과에는 그릿이라는 요소가 밑거름이 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학업에 중요한 계기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교사-학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최권 외(2013)는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 참여, 즉 행동적 참여, 정의적 참여, 인지적 참여 변인 모두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백병부·김정숙(2014)은 중학생 대상 분석 연구에서 교사-학생 관계가 영어와 수학 과목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필요 적절한 역할을 하고 그 필요를 채움으로써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볼 때, 교육의 맥락에서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이 이어지지 않는 데에는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장희원과 김경근(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학생들은 학업성취가 높았고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사를 깊이 신뢰할수록 학업성취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특히, 교사 신뢰는 부모 관계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운 영향력을 가졌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얻도록 하는 데 교사가 갖는 의미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 격차의 해소와 관련해서 교사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교원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꾸준히 연구가 이뤄진 가정 배경을 살펴보면, 변수용과 김경근(2008)은 중학생 대상 분석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질수록 교육적 관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학습과 생활 지도와 같은 형태의 교육적 관여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은 자녀의 영어 학업성취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여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한부모 가족의 부모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기선(2010)은 1988년과 2007년 서울시 중학생 대상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20년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결정에 가정 배경 변인들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해졌고 학생들의 사회심리적 변인과 교육적 노력 정도를 나타내는 학습 경험 변인들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 성취도 격차가 심화되어 왔고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백병부(2012)는 중학생 대상 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생 및 학교 수준 모두에서 국어와 영어 성적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두

수준에서 영어 과목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였다. 또한 전윤지·김경근(2013)의 분석 연구에서 부모 학력과 양육 태도는 중학교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오락 목적 컴퓨터 사용은 줄어드는 반면, 학습 목적 사용은 늘어났다. 이는 학생들의 성취 및 생활 전반의 부모의 학력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볼 때, 부모의 세심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회 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진로 및 진학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장희원과 김경근(2015)은 중학생 대상 분석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학업성취의 상승효과를 더 크게 누린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의 격차가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게 나타나는 학교에서 더욱 확대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의 가정 배경 요인이 가정 요인에 그치지 않고 학교의 사회경제적 지위로도 연결되어 높은 성취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성취 및 교육 수준에서 소외되지 않고 열린 기회를 가지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 전환점의 한 가운데에 와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 이들의 주요 발달 과업인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향 요인으로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그릇, 교사와의 관계를 보고자 하며 여기에서 가정 배경을 통제 변수로 하여 학업 성취도와의 영향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해당 시기에 요구되는 발달에 맞게 학업적인 성취를 해나감에 있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고 개인 및 학교, 사회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전환되는 첫 출발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의 시작 지점이다. 이렇듯 대학교에서 첫 출발점

에서 있는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의 시작 지점으로서 교양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후, 대학생들에게 교양교육에서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대학 교양 정책이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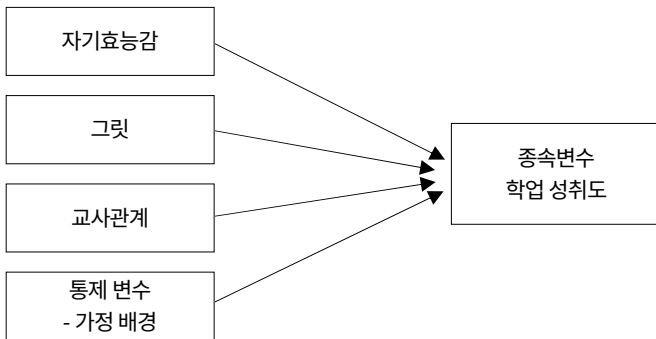
연구문제 1.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그릿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교사 관계는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가정 배경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4가지 연구문제를 토대로 구체적인 분석 틀로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형

2.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년 중학교 1학년 학생 2,590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서 종속변수인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매우 못함, 2=못함, 3=보통, 4=잘함, 5=매우 잘함”으로 측정하고 있다. 독립변수 중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자기효능감, 그릿, 교사관계는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이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문항들을 채택하였다 (표 1 참고).

<표 1>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측정 수준

상위분류	하위분류	설문 문항의 구성	측정 수준
종속변수	성취도 주관적 평가	1=매우 못함; 2=못함; 3=보통; 4=잘함; 5=매우 잘함	1-5 (Likert)
효능감	나는 공부를 잘 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그릿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나는 노력이자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교사관계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주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1-4 (Likert)
가정배경	월 평균 가구 소득	1=소득없음 - 12=1,000만원 이상	범주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	1=최하; 2=하; 3=보통; 4=상; 5=최상	1-5 (Likert)
	최종학력 (아버지)	1=학교 안 다님 ~ 7=대학원 졸업	범주
	최종학력 (어머니)	1=학교 안 다님 ~ 7=대학원 졸업	범주
	평일 부모와 대화시간	1=전혀 안함 ~ 7=4시간 이상	범주
	주말 부모와 대화시간	1=전혀 안함 ~ 7=4시간 이상	범주
	가족과 통화	1=전혀 통화하지 않는다; 2=거의 통화하지 않는다; 3=가끔 통화한다; 4=자주 통화한다.	1-4 (Likert)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의 학업 성취도(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종속변수를 측정하는데 학업 성취도 변수는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analysis)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ATA 16.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중회귀분석과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 분석방법을 통해서 진로 대화, 자아존중감, 그릿, 창의성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한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1) 학업 성취도 및 관련 변인 기술통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인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유형별로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 성취도 주관적 평가는 평균 3.420으로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보통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능감 중 “나는 공부를 잘 한다” 변수는 평균 2.499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그런 편이다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평균 2.230으로 나타나 이 변수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 2.561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그런 편이다 중간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릿과 관련해서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평균 2.45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그런 편이다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노력가이다”에 대해서 평균 점수가 2.78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을 노력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관계에 대해서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에 대해서 평균점수가 2.279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주신다”에 대해서는 평균점수 2.561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그런 편이다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가 2.773으로 나타나 선생님이 자신을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정 배경과 관련하여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은 평균 2.962로 대부분이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했고, 월평균 소득은 평균 6.689로 대부분 월 소득이 400

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하였다. 평일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평균 3.866으로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미만의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평균 4.551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통화는 평균적으로 3.506으로 나타나 대부분 가끔 부모와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분류	변수	Obs	Mean	Std. Dev.	Min	Max
종속 변수	학업 성취도 주관적 평가	2471	3.420	.925	1	5
자기 효능감	나는 공부를 잘 한다	2590	2.499	.840	1	4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2590	2.230	.806	1	4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2590	2.561	.825	1	4
그릿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2590	2.454	.769	1	4
	나는 노력이자이다	2590	2.784	.739	1	4
교사 관계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2590	2.279	.797	1	4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 주신다.	2590	2.561	.803	1	4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2590	2.773	.760	1	4
가정 배경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	2585	2.962	.536	1	5
	월 평균 가구 소득	2587	6.689	2.286	1	12
	아버지 최종학력	2469	5.225	1.064	1	7
	어머니 최종학력	2516	4.999	1.015	1	7
	평일 부모님 대화시간	2590	3.866	1.423	1	7
	주말 부모님 대화시간	2590	4.551	1.573	1	7
	가족과 통화	2541	3.506	.646	1	4

2)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표3 참조). 독립변인은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가정 배경, 자기효능감, 그릿(Grit), 교사 관계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월 평균 가구 소득(.023, $p < .001$)과 아버지의 최종 학력(.044, $p < .00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가 높았고,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높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가 높았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과 부모와의 대화나 통화시간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나는 공부를 잘 한다” 변수(.577, $p < .000$)와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변수(.153, $p < .000$), 그리고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변수(.049, $p < .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이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릿의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나는 노력이자다” 변수(.041, $p < .06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유의성이 크지 않았고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 어렵다” 변수(-.047, $p < .018$)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도 집중하기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 관계의 통계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변수(-.032, $p <$

.09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유의미성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 주신다.” 변수 (-0.055, $p < .004$)와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변수 (.102, $p < .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충을 받지 않는 학생일수록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가 높으며 선생님이 자신을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주관적 성취도 평가가 높았다.

종속변수인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 변수가 5점 척도로 되어 있어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했을 때 다중회귀분석과 통계적으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다중회귀분석과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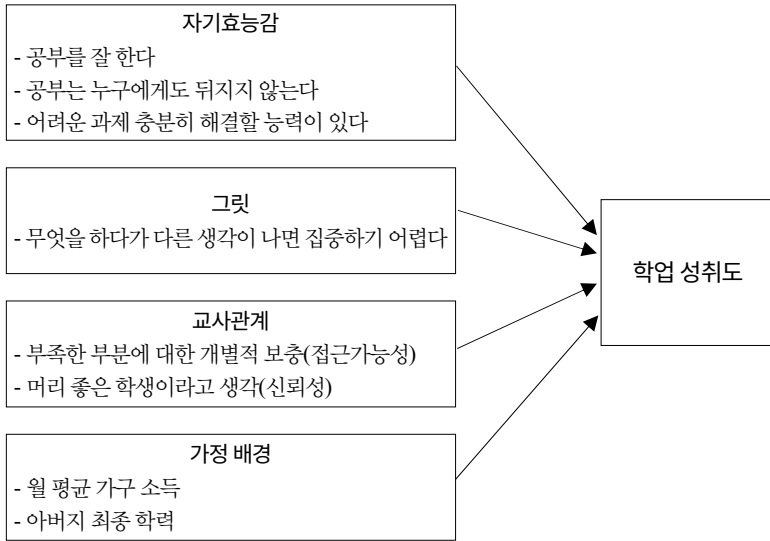
<표 3> 다중회귀분석과 순서로지스틱 분석 결과 비교

구분	다중회귀			순서로지스틱	
	B	Beta	P	Coef.	P
월 평균 가구 소득	.023** (.007)	.056	.001	.076** (.023)	.001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	-.022 (.029)	-.012	.451	-.114 (.093)	.220
최종학력 (아버지)	.044** (.017)	.050	.008	.135* (.054)	.011
최종학력 (어머니)	-.014 (.018)	-.015	.440	-.022 (.057)	.696
평일 부모와 대화시간	.025 (.017)	.038	.143	.083 (.053)	.113
주말 부모와 대화시간	-.029+ (.015)	-.049	.056	-.091+ (.047)	.051
가족과 통화	-.001 (.022)	-0.00 1	.969	.022 (.070)	.750
나는 공부를 잘 한다	.577*** (.029)	.523	.000	1.851*** (.099)	.000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153^{***} (.029)	.133	.000	.566^{***} (.095)	.000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049[*] (.025)	.044	.049	.137 ⁺ (.080)	.087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049[*] (.019)	-.041	.012	-.164^{**} (.062)	.008
나는 노력가이다	.042 ⁺ (.022)	.034	.058	.103 (.066)	.120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032 ⁺ (.019)	-.028	.093	-.112 ⁺ (.061)	.069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 주신다.	-.055^{**} (.019)	-.048	.004	-.156[*] (.062)	0.012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102^{***} (.023)	.084	.000	.342^{***} (.073)	0.000
상수	1.228 (.151)		.000	-	-
N	2246		2426		
F (Prob > chi ²)	.000		.000		
R ² (Pseudo R ²)	.529		.2945		

※ B = 비표준화계수. Beta =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괄호 안의 숫자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기효능감과 그릿, 그리고 교사 관계가 학생들의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자기효능감, 그릿, 교사관계와 학업성취 만족도 간의 관계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독립 변인으로 가정 배경, 자기효능감, 그릿, 교사 관계를 설정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가정 배경 변수 중 월 평균 가구 소득과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학업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어머니의 최종 학력과 부모와의 대화나 통화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아버지와 관련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중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질수록 교육적 관여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

다고 한 변수용과 김경근(2008), 중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생 및 학교 수준 모두에서 학업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백병부(2012) 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처럼, 가계의 월 소득과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업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과 그로 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적 지원과 제도 마련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 변수 문항 중에는 “나는 공부를 잘 한다.”,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만한 능력이 있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박영신 외(2015)의 연구, 임효진과 이지은(2016) 등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를 볼 때, 학생들이 당장의 실패나 낮은 성취가 전부로 여기지 않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쌓아가고 작은 성취를 진척하면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도록 이를 잘 유지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을 토대로 학습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학습 멘토링이 요구된다.

셋째, 그것이 주관적 학업 성취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나는 노력이자이다.”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유의성 정도가 크지 않았고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 어렵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것이 영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박찬호·황명환(2019), 심미연·황명화(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이 단기적인 노력이나 성과에 집중하지 않고 노력과 인내를 지속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장시간의 학습 시간을 견디고 이를 완료했을 때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일정 수준에서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을 쌓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정 배경 변수들과 자기효능감 변수들, 그리고 그것 변수들

을 통제한 후 교사 관계의 통계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 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유의성 정도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교 풍토와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 주신다.” 문항은 학업 성취도와 부적 영향 관계로 나타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별 보충을 해준 학생일수록 주관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사교육 등으로 이미 학업적인 필요나 욕구를 충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말하면, 이외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선수학습을 했으므로 학교 교사를 통한 교육이나 보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 중심이 아닌 학교 교육만으로도 학교, 교사 중심의 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양극화를 방지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교사가 학생의 수준에 상관없이 학생을 믿고 인정해 줄 때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가 부모 관계에 비해 학업 성취도에 있어 2배 가까운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한 장희원·김경근(2015)의 연구, 중학생에 있어 교사-학생 관계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백병부·김정숙(2014)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의 평등하고 신뢰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업 성취도 변인은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평가 결과와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 학업 성취도 및 진단 검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 분석을 함으로써 학업 성취도에 대한 학생

들의 주관적 응답이 아닌 보다 사실적인 결과에 기반한 분석 및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갓 진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는 중학생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기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중학교 전 연령 혹은 다른 연령대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다양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 관한 독립 변인으로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학생의 학업성취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교수 역량이나 수업 경험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후에는 학생들의 학업에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교사의 교수 역량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2018년도에 수집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시점 혹은 여러 시점에 걸친 연구 결과의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다년간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점의 발달 경향을 종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주관적인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는 자기 스스로 얼마나 기초교육에 대해서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는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결국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초교육을 통해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에서의 교양교육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기초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을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기초 교양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단순히 입시와 취직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양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 전환되는 첫 출발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의 시작 지점이다. 그래서 초등교육과 달리 중등교육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대상 중학교 1학년은 중요하다. 이렇듯 대학교에서 첫 출발점에서

있는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의 시작 지점으로서 교양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는 가정 배경과 같은 변화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효능감, 그릿, 교사 관계와 같이 대학의 교양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에 의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학 교육에서 단순히 취업에 국한된 교양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자아를 탐색하고, 계발하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삶의 목표를 계획, 실천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양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덕천, 2013, 「청소년 기초교육」, 교육신문. https://edugrad.korea.ac.kr/edugrad/newspaper/newspaper_watching.do?mode=download&articleNo=53688&attachNo=41238&totalNoticeYn=N&totalBoardNo=.
- 김성양·조규판, 2018, 「여고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학습전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집 1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55-472.
- 김현진, 2013, 「교사·학교장 신념과 중학생의 자율성 및 자기효능감, 학업 성취도의 관계 분석」,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제51집 2호, 117-143.
- 박영신·이임순·이상희·김태우, 2015,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제29집 3호, 한국교육심리학회, 505-542.
- 박찬호·황명환, 2019, 「부모의 학업 관여, 그것이 영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집 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67-97.
- 변수용·김경근, 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 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18집 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39-66.
- 백병부, 2012, 「가정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와 수행평가의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제22집 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111-132.
- 백병부·김정숙, 2014, 「학교 내 사회자본이 학업성취 격차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제52집 1호, 한국교육학회, 221-249.
- 성기선, 2010,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가정 배경의 영향력 변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중학생 1988년과 2007년 비교 -」, 『교육사회학연구』, 제20집 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83-103.
- 심미연·황명환, 2019, 「국내 고등학생의 자율성, 영어 학습 전략, 그리고 영어학업 성취도의 관계성 연구」, 『영어교과교육』, 제18집 4호,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161-188.
- 이숙정·김희란·모화숙, 2018, 「학업 성취도와 자기효능감 간의 종단적 관계: 중학생의 국어와 수학의 교과 내, 교과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 그것, 교사 관계가 중학교 1학년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51

- 육연구』, 제18집 4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675-697.
- 이정림·권대훈, 2016, 「통제 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3집 11호, 한국청소년학회, 245-264.
- 임효진·이지은, 2016,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수업능력,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의 중단적 변화 - 영어, 수학과목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3집 6호, 한국청소년학회, 71-95.
- 장희원·김경근, 2015, 「학업성취에 대한 학생 사회경제적 구성의 효과: 계층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제53집 2호, 한국교육학회, 27-53.
- 전윤지·김경근 (2013). 「가정 배경, 교사지지, 컴퓨터 이용 행태,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제19집 1호, 안암교육학회, 5-34.
- 주영주·서혁·윤성혜 (2017). 「고등학생 국어 교과 학업 성취도의 영향 요인 분석」, 『국어교육』, 제157집, 한국어교육학회, 285-308.
- 최권·전민재·안효영·진하늘·도승이 (2013).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 및 교우 관계가 수업 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제14집 4호, 교육연구소, 281-306.

**Analysis of factors of self-efficacy, grit,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ffecting middle school
students'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evaluation:**
Insights and Implications for General Education in Korea

Yoo, Jisung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evaluation of middle school first grade student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by using the survey data (N=2,590)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family background was set as a control variable, and the effect of self-efficacy, grit, and teacher relationships on academic achievement were examined. For th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onfirmed between self-efficacy, grit, teacher relations, family background, an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confirm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Keyword ● Self-efficacy, Grit, Teacher relation,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Middle school first grade students

논문투고일 : 2023. 06. 06. | 심사완료일 : 2023. 06. 15. | 게재확정일 : 2023. 06. 16.

교양영어 토익수업 사례연구:

L2 화자의 문법적 오류 양상

윤소영*

1. 서론
2. 토익 수업 운영실태
3. L2 화자의 문법적 오류 사례 분석
4. 토익수업 관련 설문조사 분석
5. 결론 및 제언

■ 국문요약

본고는 충청권 소재 4년제 대학인 K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영어 수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3학점 3시간 수업으로 구성된 교양영어 수업에서 3시간 중 1시간을 차지하는 토익수업의 비중을 특히 문법교육과 관련해 문법적 오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가 담당한 4개 반은 모두 신입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능 절대평가가 시행된 지 3년 된 상태여서 특히 문법 지식이 결핍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토익문제 풀이를 통해 비영어민으로써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학습하는 대상인 L2 화자의 문법적 오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대학 부교수, sweetie33@daum.net

본 연구는 특히 고교 3년 간 코로나 창궐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만 진행했던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면수업과 플립러닝으로 비대면수업을 병행해 진행하면서 영어문법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정도를 파악하는데 근간을 둔다. 기초 필수 교양 교과에서 똑같은 교재로 운영하는 토익 수업 중, 학생들에게 문제 풀이 후 질문을 하게 하여 다양한 문제 중에서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보았다. 즉 각 반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어떤 범주인가, 문제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면서 비영어권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문법적 오류는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흥미로운 점은 매 Unit마다 제공되는 총 15개의 실전 문제 중에서 각 반마다 공통적으로 질문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공통질문 4-5개를 추려서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결여되고 미진한 문법적 지식이 어떤 부분인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주안점이 있다.

주제어 ● 교양영어, 토익, 영어문법교육, L2 화자, 문법적 오류, 효용성

1. 서론

교양교과 중에서 외국어 영역 중 영어 교과의 중요성이 날로 희박해지고 있다. 교양 교육의 꽃이라 불렸던 영어교과이지만 날이 갈수록 필수교과에서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점이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본 연구는 충북 소재 4년제 K대학의 1학년 대상 교양영어 수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중 특히 토익수업에 집중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K대학의 교양영어 수업은 3학점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시간은 주교재를 활용하고, 1시간을 토익에 집중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K대학의 교양영어 수업은 KUGEP(Konkuk University General English Program)로 명명된 바, KUGEP1 듣기중심, KUGEP2 읽기중심, KUGEP3 말하기중심, KUGEP4 쓰기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KUGEP1은 교양필수교과여서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KUGEP2는 선택적 필수교과로 선수, 후수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어, 1학기에 KUGEP1과 KUGEP2를 단과대 계열별로 구분해 분반 수를 절반 정도로 산정해 동시에 개설하고 있다. 3학점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K1, K2와 달리 KUGEP3과 4는 심화교과 범주로 구분되며, 2학점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학점이지만 3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수업 중 1시간을 토익 학습에 할애한다는 맥락에서 그렇게 지정되었다. 네 교과 모두 학기 시작에 모의토익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학업 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부족한 영어학습 역량을 진단하게 된다. 학기 중에 수업을 통해 토익에 대해 노출하게 한 후 14주 차에는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토익성적 향상이 어느 정도로 상향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시험에 의미를 두기 위해 영어능력향상도를 성적에 반영하고 있는 바, 전체 성적 배점 100퍼센트 중 20퍼센트를 부여하고 있다. 한문섭·황종배는 문법 교육의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느냐”(82)가 핵심적인 부분이라 지적하면서 『영어교육』에 실린 논문 중 교수방법론에 대한 비중이 늘었다고 주목한다. 그 결과치로는 1990년대에 문법에 관한 연구논문비율(2.99%)보다 2000년대 들어 4.01%로 평균적으로 3.14%를 차지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KUGEP1~4 네 과목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토익학습에 대한 특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수업인 KUGEP1 3개반과 KUGEP2 1개반은 모두 신입생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토익에 대한 인지, 학습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토익문제 풀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문법적인 학습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제 풀이와 관련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4개반 모두에서 토익 수업을 위해 공통교재인 *All-in-One ToEIC Advancer*를 다루고 있는데,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수업 운영방식을 우선 살펴보겠다.

2. 토익 수업 운영실태

본 수업에서 필자의 토익 수업 운영은 (1) 단어시험, (2) 실전문제풀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단어를 우선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교재의 구성상 LC파트와 RC파트 각기 12개씩의 Unit으로 짜여져 있는데, 수능 영어 시험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문법적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RC파트 12개 Unit을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설계하고 있다. LC파트는 12~13주차에 형성평가를 대비하며 집중몰입교육으로 진행한다. LC/RC 각 과에는 40개씩의 단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토익시험을 준비하는데 요구되는 2천 단어 암기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단어 학습 후 퀴즈를 치루도록 하고 과제 점수 15점 중 5점을 단어평가로 반영한다. 즉 매주 단어 암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어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어학습을 위해 매시간 간단한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단어 시험을 치루기 전에 RC파트의 40개 단어를 수업 중에 학습시킨 후 그중 5개의 단어를 지정해 시험을 보게 한다. 단어 읽기와 발음, 철자와 품사 및 파생어에 이르기까지 특정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암기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수업 때 40개의 단어를 학습한 후 교수자별로 배정된 수업 별 온라인 학습방인 TLS(Teaching and Learning System)에 장착된 퀴즈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글로 뜻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시작하였다. 그 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문항 수를 2개 더 늘려 진행했는데, 한글 뜻을 제시하고 영어단어를 쓰게 하였다. 이 부분은 쓰기 훈련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었다. 단어 검색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직접 단어를 쓰는 기회가 별로 없다. 단어 쓰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근래에 들어 철자에 유독 약해진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단어를 쓰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단어 시험을 치른 후 학생들에게 2분간 시간을 주고, 수업 현장에서 9~15번까지의 문제를 시간 내에 풀게 하였다. 총 15개 문항 중에서 1~8번까지의 문제는 미리 풀어오도록 유도하였다. 문제 풀이 후 학생들에게 틀린 문제 위주로 질문을 하게 하였다. 특히 문제 풀이 설명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1~15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질문을 받았다. 각 반에서 질문한 문제 중 특히 특정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질문이 발생한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 본다.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공통된 질문이 이루어진 이유는 학생들에게 주로 약한 문법적 부분이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문법적 이해에서부터 내용이해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수업 진행 시 활용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문제설명 후 수업에서 제공한 특이사항은 학생들이 스스로 출제자가 되어 그 문제를 응용하여 출제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여기서도 학생들은 본인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래 집단에서 내는 문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도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시도는 교수자의 설명 방식을 자신들에게 대입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문제를 출제하게 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효과는 문제유형 및 출제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이 문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사 문제풀이 또는 적용할 문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주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문제를 출제하는 경험은 문법설명이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제에 대한 명시적 이해와 암시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다소 질문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이 질문을 함으로써 수업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역으로 교수자가 학생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하였고, 질문의 문항 수가 최소 5개는 되어야 한다고 정해주고 난 후,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초기에는 질문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망설이기도 하였으

나, 주차가 거듭되면서 각 Unit당 10개 정도까지 질문의 양도 대폭 늘어났다. 특정 품사를 다룬 Unit에서는 문제 전체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진행할 정도로 품사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는 중간고사 이전까지의 문제 풀이 과정이다. 총 5개의 Unit에서 다룬 품사는 다음 장에서 다룬 예시와 같다. 다음 장에서는 학생들의 질문을 예로 들어 수업 시간에 행해진 설명 부분을 곁들이면서 문법적 오류 및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안을 덧붙임으로써 학습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3. L2 화자의 문법적 오류 및 사례 분석

“보편 문법의 결속원리를 의식적으로 학습한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집단보다 원리 적용 능력이 뛰어났다”(한종임, 1998)

보편문법의 학습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한종임의 입장과 관련해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시작점이다. 마찬가지로 책의 목차를 통해 문법적 지식이 어떤 순서로 습득되어야 하는 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교재의 RC 파트 구성에 대해 우선 간단히 살펴보겠다.

- Unit 1구, 절 및 문장구조
- Unit 2동사의 종류 및 시제
- Unit 3명사, 한정사 및 대명사
- Unit 4형용사
- Unit 5부사
- Unit 6전치사
- Unit 7to 부정사
- Unit 8동명사

Unit 9분사와 동사의 태

Unit 10 명사절 및 형용사절 접속사

Unit 11 부사절 접속사

Unit 12 비교/ 가정법/ 도치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각 Unit별로 3~4개의 문제에 집중해서 설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전 문제를 살펴보았다. 아래는 4개 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문제에 대한 풀이 및 설명을 제시한 것이다.

Unit 1 구, 절 및 문장의 구조
<p>9. One of the foreign bidders _____ our company a deal worth about five billion dollars last Friday. (A) offered (B) made (C) remained (D) provided 4형식 동사의 뜻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많은 학생들이 'provided'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나 전치사가 없으므로 'offer A B'를 선택해야 맞는 문제이다. → 제안: 4형식 동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예문을 연습하게 함</p>
<p>10. KB Technology finally _____ the world's third largest IT company in terms of market capitalization, the total value of the company's shares. (A) sold (B) became (C) merged (D) considered "I became a student."처럼 2형식 문장(SVC)에 쓰이는 동사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문장이 길고 토익 관련 단어가 많이 제시되어 있어 단어습득이 미약한 학생의 경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이다. → 제안: 토익 기본 단어습득을 하도록 유도하고, 문제 풀이 전에 각 Unit 별 단어학습을 함으로써 문제풀이 시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도록 한다.</p>
<p>11. All contracts must be _____ reviewed by our in-house lawyers in the legal department before they are signed. (A) rigor (B) rigors (C) rigorous (D) rigorously 문장의 뜻이 닿는 경우,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품사는 부사이다. → 제안: 제시된 단어의 품사를 정확히 안다면 각 단어를 대입해보면서 풀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어 암기 시 품사를 확실하게 인지하는게 중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p>
<p>13. Sales representatives always need to keep their customers ----- and aware of what is</p>

happening.

(A) inform (B) informed (C) informative (D) information

inform의 두 가지 형용사 ‘informed’와 ‘informative’의 뜻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 제안: 수업 중에 ‘-tive’라는 접미어가 “full of sth”의 뜻을 갖는다고 설명하였고, ‘(정보가 풍부해서) 유용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임을 숙지시켰다. ‘informed’는 ‘알고 있는’의 뜻을 가진 단어이므로 ‘keep O 형용사’로 쓸 때 필요한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Unit 2 동사의 종류와 시제

6. Dr. Lisa Neilson ____ for 15 years as a physician f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y the time she retires next week.

(A) serves (B) has served (C) had served (D) will have served

‘trigger words’인 ‘next week’과 시간을 나타내는 ‘by the time’은 부사절을 이끄므로 ‘retires’처럼 현재형 동사를 써서 미래시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해야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동사의 시제 중 미래완료 활용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 제안: 특히 ‘by the time’이 그때까지 완료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완료시제를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가령 ‘5월이면 중간고사가 끝났을 것이다’처럼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10. Mr. Edward Finch, the sales manager of the company, _____ for his contribution and dedication to the increase in profits at an award banquet this Thursday.

(A) is honored (B) has been honored (C) had been honored (D) will be honored

동사의 시제 문제는 어렵고 확연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한국어의 시제와 영어의 시제 활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맥상 ‘this Thursday’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므로 미래의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미래시제를 선택해야 맞는 답이다. → 제안: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지시 형용사가 합쳐지면 부사구를 형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문맥이해를 위해 내용에 대해 파악하도록 유도함

11. It’s expected that the sales of famous foreign brands at the top-three department stores ____ by the end of this year.

(A) triples (B) tripled (C) has tripled (D) will have tripled

‘be expected’가 쓰였으므로 미래 시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by the end of this year’ 구문이 있으므로 미래 완료 시제를 써야 한다. → 제안: by ~ 구문이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라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게 함

14.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____ a meeting with some international economic

experts from the WEF next Friday.

(A) hold (B) held (C) is holding (D) will be held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be + ~ing'를 쓰고,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이니 만큼 D번처럼 수동태를 쓴 함정을 피해야 한다. → 제안: 수동태를 쓰는 경우 주어가 직접 행하는 것인지, 동작을 받는 쪽인지를 대입해서 접근하게 함.

Unit 3 명사, 한정사 및 대명사

7. ____ factor influencing our export volumes and profitability is the recent raise in exchange rates.

(A) Another (B) Plenty of (C) Each (D) A number of

another는 an+other이므로 '또 하나'의 뜻을 가진 부정대명사이거나 부정형용사로 쓰인다. 주어진 'factor'는 셀 수 있는 명사이고 단수이므로 복수 명사를 취하는 'plenty of'나 'a number of'는 답이 되지 않는다. (A)나 (C)는 단수를 취하지만 맥락상 'each'는 답이 아니다. → 제안: another의 활용에 대해 문장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쓰임의 다양성 역시 예문을 통해 숙지시키도록 함.

10. Last month's accounting seminar was the most successful one so far with more than 500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____.

(A) attend (B) attendants (C) attendees (D) attendance

명사의 활용에 관한 문제이다. 형용사구를 만들 때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attend'의 명사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고,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한다는 것 즉,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가 필요하다는 문법적 지식이 기반되어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제안: 품사를 정확히 아는 훈련이 요구되므로 유사형태의 명사형 만들기를 수행하게 함.

12. Employees working at the branch office in Berlin occasionally travel to ____ major cities in Europe such as London, Paris and Rome.

(A) other (B) others (C) another (D) each other

수량 형용사의 활용에 관한 문제이다. '다른'의 뜻을 가진 단어 'another'는 an+other이므로 '또 하나'의 뜻을 가진 부정대명사이거나 뒤에 단수 명사를 취하는 부정형용사이다. other와 another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other와 others의 차이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other는 형용사로 '다른'의 뜻이지만, 'others'는 'other people' 즉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므로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과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each other'의 의미는 둘 간에 쓰고 '서로'라는 의미이므로 이 문제에서는 적절치 않은 답이다. → 제안: 수량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 예문 만들기를 시도하게 함. 학생들이 기억할 수 있는 선에서 예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지시킴.

13. Domestic exporters need to enhance their competitive edge through deeper cost cuts and stricter _____ control.

(A) qualify (B) qualified (C) qualification (D) quality

이 문제는 복합명사의 활용에 관해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품질관리’라는 용어를 정확히 구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복합명사를 만들 때 ‘단수명사+단수명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문법적인 사항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할 경우 틀린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 제안: 단수명사+단수명사로 구성되는 복합명사의 예를 문제로 풀게 할 필요가 있음.

14. Due to careful _____, the company’s profits grew nearly 15% even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 plan (B) planning (C) planned (D) planner

이 문제는 ‘plan’과 ‘planning’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plan’은 단수 명사로 계획이라는 뜻인 반면, ‘planning’처럼 동명사형이 될 때에는 ‘기획’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plan’이 동사일 때 ‘계획을 짜다’인 경우 과거분사 형태인 ‘planned’는 ‘계획된’의 뜻이고, ‘계획자’라는 명사의 의미인 ‘planner’ 역시 많이 쓰이는 단어이므로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 제안: 단어를 직접 써보고, 문장 속에 활용하는 기회를 갖도록 함. 인터넷 사전을 활용해 문장을 만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Unit 4 형용사

10. Apple Electronics, one of the leading global companie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recently introduced _____ high-tech products to satisfy both domestic and foreign consumers.

(A) variable (B) various (C) variety (D) variation

‘high-tech products’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필요한 문장이다. ‘vary’의 활용에 대해 설명 하여 (C)와 (D)에 제시된 명사형의 의미 차이와 ‘variable’은 형용사면서 명사라는 점을 강조해준다. ‘various’라는 형용사는 ‘a variety of’로 쓸 수 있다는 것도 부연 설명해준다. → 제안: 형용사가 쓰이는 문장을 연습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됨. vary의 파생어를 연습하게 하여야 함.

12. The economy of some developing nations, which is heavily _____ on exports, is very vulnerable to economic shocks from outside.

(A) depend (B) dependency (C) dependent (D) dependable

‘depend on sth’은 ‘~에 의존하다’라는 뜻이고, 동사 ‘depend’와 등가인 ‘be dependent’를 써서 문장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depend’의 형용사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문는 문제라 할 수 있다. → 제안: 단어의 품사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품사별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장 연습 또는 단어쓰기 연습을 수행하게 함.

14. As the current growth figures are ____ with the initial estimates in January, it shouldn't be difficult to achieve the projected annual growth of 4 percent.

(A) responsive (B) relevant (C) consistent (D) familiar

숙어처럼 외우고 있을 때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be consistent with'를 써서 "~에 상응/부합하다"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 제안: 빈번하게 쓰이는 숙어에 대해 제시해주고 예문 만들기를 수행하게 함.

15. The difficult phase of doing translation is to make target material ____ to native speakers as well as those who are bilingual.

(A) comprehend (B) comprehensive (C) comprehensible (D) comprehending

사역동사의 활용에 대해 확인하는 문제이다. 'make O 형용사'를 써서 목적어가 형용사하다는 뜻을 이루게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 제안: 사역동사를 통해 문장만들기를 수행하게 함. 틀린 문장을 제시하고 맞게 고치는 시도도 쉽게 문장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Unit 5 부사

2. The equipment has been lined up to ____ comply with the production workflow in our modernized plant.

(A) perfection (B) perfectly (C) perfecting (D) perfect

'to 부정사' 가운데 부사를 넣어 수식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부사의 위치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혼동을 하곤 한다. → 제안: 수업 시간에 설명한대로 부사 활용 규칙을 소리내어 연습하게 함.

5. With the abolition of tariff, the purchase price of a compact car will be reduced by ____ 2,600 euros.

(A) much (B) frequently (C) mostly (D) approximately

뒤에 숫자가 제시될 때, '대략'의 의미를 가진 부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제안: '대략'의 뜻을 가진 부사는 많이 쓰이는 편이므로 다양한 부사형태를 연습하게 함.

9. Our senior accountant tries to respond as ____ as she can and clarify the parts that don't seem to match up.

(A) clear (B) clearer (C) clearly (D) more clearly

동등비교 구문 'as~as'에 들어갈 원급의 형용사나 부사를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

이다. → 제안: 형용사,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 활용을 예문을 통해 옆사람에게 설명하게 유도함.

11. If this clinical trial for new medicine is successful, we can destroy harmful bacteria or viruses _____ more easily, curing almost all diseases.

(A) many (B) much (C) quite (D) very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much, even, far, still, a lot’을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제안: “Very good!”과 “Much better!”를 짝꿍에게 소리내어 말하게 함으로써 눈이 아닌 소리와 입으로 기억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게 함.

이처럼 다양한 문법적 지식에 있어 미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질문이었다고 본다. 중간고사 범위까지 총 5개 과를 다루었기에 절반에 미치지지는 못했으나 밀도있게 다루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은 꼼꼼하게 문법적 지식을 쌓은 상태가 아니었고, 대략적으로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수준 정도에 머물러도 된다고 생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토익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기 위해서는 꼼꼼한 문법적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음 장에서는 네이버 폼을 활용한 설문 조사를 통해 토익 수업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였다. 수업 전반에 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플립러닝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좋았던 점, 더 요구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주관식 문항도 첨부해 질문을 제시하고 직접 쓰게 하였다. 설문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4. 토익수업 관련 설문조사 분석

“영어교육에서 문법 교육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부분”임은 “어떻

1) Lage, Platt & Treglia (2000)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학습 유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플립러닝의 효용성을 강조한다.

게 지도해야 하는가”(Ellis, 2006)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있다(서소담 138). 문법 교육을 위해 문제 풀이를 시행한 이 수업이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문을 제시했다. 수업에서 이루어진 문법 관련 질문 중 4개 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 풀이와 관련해 묻고 답하는 설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상을 시청한다.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					
수업에서 문법 설명 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수업 후 여전히 부족한 문법적인 부분은 동영상 시청으로 해결한다.					
수업 후 복습을 한다.					

* 주관식 질문: 이 수업에서 문제풀이와 관련해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쓰시오.

* 문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에는 수업 중 해결, 또래나 선배에게 개인적으로 묻기, 학교 내 비교과수업 활용, 학원수강 등이 있다.

수업 중 이루어지는 문법설명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문법을 숙지하고 본 수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에 녹화해둔 문법설명 부분을 미리 TLS에 올리고 자율적으로 시청하게 하였다. 3시간 수업이지만 주교재 설명과 부교재 문제 풀이로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40분에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설명을 보다 꼼꼼하게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다. 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부족한 문법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쪽으로 유도하였다. 영상 참여 부분이 출석으로 반영되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청하게 하였고, 출석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

상을 미리 보고 오는 플립러닝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수업 중에 설명을 듣는 쪽을 선호하였다. 23학번의 경우 고교 3년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했던 터라 플립러닝에 익숙할 것이라 예상한 것과는 달리 대면 수업에 대해 더 적극적임이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확연하게 드러난 점은, 현장에서 문제 풀이를 통해 직접 문법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점진적으로 실전 문제 풀이 직전에 문법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더니, 학생들의 집중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문법 교육이 명시적인가 암시적인가? 명시적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연역적 방법, 암시적 방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귀납적 방법(Doughty & Williams, 1988)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간고사까지의 범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수업에서는 단어 학습을 토대로 반영된 실전 문제 풀이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과인 KUGEP1과 2는 3학점 3시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시간이 토의교재로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토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문제유형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정했다. 특이한 점은 각기 다른 반에 속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사 부문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질문이 각 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공통적인 질문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비원어민인 한국 학생들이 느끼는 문법적인 어려움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보고,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분석 범위를 중간고사 이전으로 한정함으로써 전체 내용을 담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동사의 시제 및 종류, 명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 등 기능어 중심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이 무엇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총 참여 학생은 102명으로 단과대학별로 구분한 것과 성별로 나누어 구분한 설문지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단과대학별

1)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 시청한다

단과대학	수업1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문사회융합대학	8 15%	15 28%	22 41%	5 9%	4 7%	54 100%
디자인대학	0 0%	2 50%	2 50%	0 0%	0 0%	4 100%
의료생명대학	4 12%	9 27%	13 39%	6 18%	1 3%	33 100%
과학기술대학	1 9%	7 64%	1 9%	2 18%	0 0%	11 100%
전체	13 13%	33 32%	38 37%	13 13%	5 5%	102 10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별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을 시청한다’라는 설문항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chi^2 = 11.583$, $p\text{-value} = .480$). 하지만 전체적으로 37%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18%(그렇다 13%, 매우 그렇다 5%)의 학생들이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각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융합대학 학생들은 16%(그렇다 9%, 매우 그렇다 7%)의 학생들만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하였고, 의료생명대학 학생들 중 21%(그렇다 18%, 매우 그렇다 3%)의 학생들이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하였다. 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은 18%의 학생들이 수업 전에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하였다.

2)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

단과대학	수업2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문사회융합대학	0 0%	4 7%	15 28%	25 46%	10 19%	54 100%
디자인대학	0 0%	1 25%	1 25%	2 50%	0 0%	4 100%
의료생명대학	1 3%	3 9%	12 36%	13 39%	4 12%	33 100%
과학기술대학	0 0%	1 9%	2 18%	8 73%	0 0%	11 100%
전체	1 1%	9 9%	30 29%	48 47%	14 14%	102 100%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의 설문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X^2 = 9.484$, $p\text{-value} = .661$). 하지만 전체적으로 29%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61%(그렇다 47%, 매우 그렇다 14%)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각 단과대학별 살펴보면, 인문사회융합대학 학생들은 65%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약 50%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의료생명대학 학생들은 약 51%의 학생들이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대학 73%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문법 설명을 미리 보고 오는 것보다 수업 중에 문제 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수업에서 문법 설명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과대학	수업3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문사회융합대학	9 17%	18 34%	15 28%	4 8%	7 13%	53 100%
디자인대학	0 0%	2 50%	0 0%	2 50%	0 0%	4 100%
의료생명대학	4 12%	9 27%	13 39%	5 15%	2 6%	33 100%
과학기술대학	1 10%	6 60%	3 30%	0 0%	0 0%	10 100%
전체	14 14%	35 35%	31 31%	11 11%	9 9%	102 100%

‘수업에서 문법 설명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설문항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chi^2 = 16.176, p \text{ value} = .183$). 전체적으로 20%(그렇다 8%, 매우 그렇다 13%)의 학생들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디자인 대학의 학생들 50%도 수업에서 문법 설명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의료생명대학 학생들 약 21%(그렇다 15%, 매우 그렇다 6%)가 수업에서 문법 설명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은 0%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문법 설명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업 중에 문법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한 후 문제 풀이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학생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문법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문제 풀이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4)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익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단과대학	수업4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문사회융합대학	3 6%	15 28%	21 39%	12 22%	3 6%	54 100%
디자인대학	0 0%	0 0%	3 75%	1 25%	0 0%	4 100%
의료생명대학	4 12%	2 6%	14 42%	10 30%	3 9%	33 100%
과학기술대학	0 0%	3 27%	5 45%	3 27%	0 0%	11 100%
전체	7 7%	20 20%	43 42%	26 25%	6 6%	102 100%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익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는 설문항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X^2 = 11.734$, $p \text{ value} = .467$).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 31%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익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42%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인문사회융합대학 학생들 중 28%, 디자인 대학 학생들 약 25%, 의료생명대학 학생들 39%, 과학기술대학 학생들 27%가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익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5) 수업 후 여전히 부족한 문법적인 부분은 동영상 시청으로 해결한다

단과대학	수업5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문사회융합대학	3 6%	7 13%	20 37%	19 35%	5 9%	54 100%
디자인대학	0 0%	0 0%	0 0%	4 100%	0 0%	4 100%

의료생명대학	1 3%	10 30%	12 36%	7 21%	3 9%	33 100%
과학기술대학	1 9%	3 27%	2 18%	3 27%	2 18%	11 100%
전체	5 5%	20 20%	34 33%	33 32%	10 10%	102 10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chi^2 = 15.890, p \text{ value} = .196$). 하지만 전체적으로 33%의 학생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42%의 학생들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수업 후 여전히 부족한 문법적인 부분은 동영상 시청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문사회융합대학 학생들은 ‘보통이다’가 37%, ‘그렇다’ 35%, ‘매우 그렇다’가 9%로 나타났고,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10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의료생명대학 학생들은 약 66%의 학생들이 ‘보통이다’,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업 후 여전히 부족한 문법적인 부분은 동영상 시청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대학 학생들도 ‘보통이다’가 18%, ‘그렇다’가 27%, ‘매우 그렇다’가 18%로 약 63%의 학생들이 수업 후 부족한 문법적인 부분을 동영상 시청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수업 후 복습을 한다

단과대학	수업6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문사회융합대학	2 4%	5 9%	24 44%	20 37%	3 6%	54 100%
디자인대학	0 0%	0 0%	1 25%	3 75%	0 0%	4 100%
의료생명대학	2 6%	6 18%	18 55%	7 21%	0 0%	33 100%
과학기술대학	0	2	8	1	0	11

	0%	18%	73%	9%	0%	100%
전체	4 4%	13 13%	51 50%	31 30%	3 3%	102 100%

수업 후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수업 중에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을 상기하는 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본다.

7) 문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단과대학						전체
	수업 중 질문	또래나 선배	비교과수업	학원수강	기타	
인문사회융합대학	6 11%	21 39%	6 11%	1 2%	20 37%	54 100%
디자인대학	2 50%	1 25%	0 0%	0 0%	1 25%	4 100%
의료생명대학	3 9%	11 33%	2 6%	3 9%	14 42%	33 100%
과학기술대학	2 18%	4 36%	0 0%	0 0%	5 45%	11 100%
전체	13 13%	37 36%	8 8%	4 4%	40 39%	102 100%

문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또래나 선배에게 묻는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 성별

1) 수업 전에 문법 동영상 시청한다

성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9 15%	18 29%	23 37%	10 16%	2 3%	62 100%
여자	4 10%	15 38%	15 38%	3 8%	3 8%	40 100%
전체	13 13%	33 32%	38 37%	13 13%	5 5%	102 100%

2) 수업에서 문법 설명을 직접 듣는 것이 영상 시청보다 도움이 된다

성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1 2%	5 8%	18 29%	30 48%	8 13%	62 100%
여자	0 0%	4 10%	12 30%	18 45%	6 15%	40 100%
전체	1 1%	9 9%	30 29%	48 47%	14 14%	102 100%

3) 수업에서 문법 설명없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성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10 16%	21 34%	22 35%	5 8%	4 6%	62 100%
여자	4 11%	14 37%	9 24%	6 16%	5 13%	38 100%
전체	14 14%	35 35%	31 31%	11 11%	9 9%	100 100%

4)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익 문제를 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성별	수업4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4 6%	11 18%	26 42%	17 27%	4 6%	62 100%
여자	3 8%	9 23%	17 43%	9 23%	2 5%	40 100%
전체	7 7%	20 20%	43 42%	26 25%	6 6%	102 100%

5) 수업 후 여전히 부족한 문법적인 부분은 동영상 시청으로 해결한다

성별	수업5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5 8%	16 26%	21 34%	16 26%	4 6%	62 100%
여자	0 0%	4 10%	13 33%	17 43%	6 15%	40 100%
전체	5 5%	20 20%	34 33%	33 32%	10 10%	102 100%

여기서 여학생들의 경우 복습을 위한 동영상 시청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6) 수업 후 복습을 한다

성별	수업6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자	3 5%	8 13%	35 56%	14 23%	2 3%	62 100%
여자	1 3%	5 13%	16 40%	17 43%	1 3%	40 100%
전체	4 4%	13 13%	51 50%	31 30%	3 3%	102 100%

수업 후 복습 부분도 여학생들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7) 문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성별	수업7					전체
	수업 중 질문	또래나 선배	비교과수업	학원수강	기타	
남자	11 18%	17 27%	7 11%	3 5%	24 39%	62 100%
여자	2 5%	20 50%	1 3%	1 3%	16 40%	40 100%
전체	13 13%	37 36%	8 8%	4 4%	40 39%	102 100%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수업 중 문제설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소 수동적으로 보일 정도로 여학생들의 참여가 낮았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L2화자들은 영어문법 형태소 습득에 있어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 간의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비슷한 상대적 정확도 프로파일을 보인다고 주장한 이종근(92)의 입장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문법적 지식의 증대를 위해 효용성이 확보되는 것은 설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업 중에 직접적으로 설명을 듣고 풀이를 시행해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해설집이나 번역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 중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부가적으로 재차 설명을 듣고 싶은 학생을 위해 영상 강의도 탑재함으로써 반복적 문법 습득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즉 “언어 습득과 문법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Ellis(2006)의 이념에 의해 문법 교육의 방향이 조정되었”(서소담 154)다는 부분과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여전히 교양교육에서 딜레마는 학문 자체에 대한 학습 환경 조성이라는 부분과 졸업 후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취업과 관련된 학습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어교육에서 실용과 영어 자체에 대한 학습 중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염려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3시간 수업에서 2시간은 영어학습 영역에 충실한 수업을 진행하고, 1시간을 토익에 할애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단어 학습 및 테스트 후 문제풀이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문법적 지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과 동시에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는 문제가 문법적 지식이 미약한 지점이라는 점에 착안해 사례를 모아 보았다. 절대평가로의 전환 후 학생들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등에 대해 매우 미약한 역량을 보였다. 문장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에 문장의 형식을 정확히 알고 옆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할 따름이었다. 다양하고 일률적이지 않은 문법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문법적 지식을 쌓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할 것이라 본다. 문법을 귀찮고, 할 것이 너무 많기만 한 부담스러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언어활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문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더 절실하다고 본다. 제 2외국어로서의 언어 습득에 있어 문법적 지식이 선행되어야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단어 습득에서부터 시작해서 읽기가 기본이 되어야하는 영어교육에 있어 문법의 중요성은 문법 효용성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전체 학생에 대해 개별적으로 본인들에게 부족한 바가 어떤 부문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개별적인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면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연구의 특이점인 공통적 오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분석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향후 진행하는 수업에서 문제마다 어떤 답을 선택하여 틀렸는지에 대한 설문을 매시간 시행한다면 보다 밀도높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설문 조사에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경우 강의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단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후 검증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서소담·김정렬. “영어 문법 교육에 관한 역사적 고찰: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어교과교육』 19(2), 2020: 137-157.
- 이종근. “L2 화자의 영어 문법 형태소 습득 유형에 대한 연구”, 『21세기영어영문학』 1, 2008: 90-97.
- 이혜련. “플립러닝을 활용한 대학 영어문법 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 『미래영문학』 12, 2018.
- 한문섭·황종배. “한국 영어 문법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영어교육』 70(5), 2015: 81-108.
- 한종임. “한국인의 영어습득과정에 작용하는 보편문법의 역할 연구”, 『영어교육』 48, 1994. 101-126.”
- Doughty, C & Williams, J.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P, 1988.
- Ellis, R. “Current issues in the teaching of grammar: An SLA perspective.” *TESOL Quarterly*, 40(1), 2006: 83-107.
- Lage, M. J., Platt, G. J., & Treglia, M. “Inverting the Classroom: A Gateway to Creating an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 *Th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31, 2000: 30-43.

A Case Study on Learning English Grammar and L2 Speakers' Common Mistakes in Solving ToEIC Questions

Yoon, So Young
(Konkuk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aspects of students' common mistakes in solving ToEIC questions at K University in Chungcheong Province. Students are L2 speakers. Classes are comprised with three hours: two-hour for the main text and one-hour for preparing the ToEIC. That is, it could be to conduct classes faithful to the English learning area for two hours in a three-hour class and to devote an hour to ToEIC. There are four classes that I was in charge of teaching. These classes have in common: one-third of them students should pay attention to ToEIC learning. Most of all, students should know more words related to the ToEIC as possible.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class operation method, tried various methods to increase students' grammatical knowledge through word learning and post-test problem-solving processes, and gathered cases based on the fact that students of the same grade commonly ask questions. If we conduct a questionnaire every hour on what answers we choose for each question in the future class, we will be able to find more dense problems. However, students' particip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if they spend a lot of time on the survey, it is clear that they may not be able to concentrate on the lecture, so it may be better to proceed in a post-verification manner.

Keyword ● general English, Toeic, English grammar instruction, L2 speakers,
grammatical errors, efficacy

▮ 논문투고일 : 2023. 06. 07. ▮ 심사완료일 : 2023. 06. 15. ▮ 게재확정일 : 2023. 06. 16.

대학 독서 교육용 한 쪽짜리 보고서 양식 연구

임도한*

- I. 들어가는 말
- II. 대학 독서 교육 현황과 독서보고서 양식 개선의 필요성
- III.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 양식의 구성
- IV. 결론

■ 국문요약

이 연구는 현재 대학생의 작문 수준과 독서 실태를 고려하여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 양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첫째 서지사항,

둘째 책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베껴 쓰는 것.

셋째 앞에서 인상 깊다고 한 근거를 본문에서 세 개 이상 찾아 설명하는 것,

넷째 원제목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 양식은 작성할 분량이 적고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따라 작성하면 된다는 점에서 작문에 자신이 없는 학습자라도 막막하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 양식을 작성하면서 정확한 근거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법과 논문작성법 중 주석 다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ecopoetry@gmail.com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과 논문작성 시 주석을 다는 능력은 대학생이라면 전공과 무관하게 반드시 익혀야 하는 능력으로 판단했고 독서보고서를 만들 때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문항별 작성 방법은 평가자의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독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작문 비전공 교수들이 평가할 때 겪는 부담을 덜어주고 결과의 객관성도 올릴 수 있다.

한 쪽짜리 보고서를 활용한 교육이 기존에 독서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으나 기존 교육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현재 대학생의 수준에 맞춰 교육하는 보완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 독후감, 논리적 글쓰기, 주석 달기

I. 들어가는 말

여럿이서 같은 영화를 봤음에도 남에게 설명할 때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누군가는 특별히 실감 나게 묘사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얘기도 누가 하면 재미가 없고 누가 해야 더 맛깔난지 지인들은 잘 안다. 이 경우 영화든 책이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청자와 상황에 맞춰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 차이를 결정지을 것이다.

누군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쓴다고 할 때 그 최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그 수준은 맥락과 상상력의 조합이 연출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남보다 말과 글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며 이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문제 해결에 뛰어나다는 점과 이 능력이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점은 상식이다.

독서는 책이 발명된 이래 인류의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얻는 수단이었다. 최근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그 위상이 많이 밀리

고 있으나 과거 책 한 권의 가격이 오늘날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폰보다 훨씬 비싼 적도 있었다. 아마도 그 기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오늘날 시대를 선도한 인물로 스티브 잡스를 꼽을 때 이견이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기존의 틀을 깨고 시대를 선도한 면을 인정하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가 ‘고정관념을 깬’ 측면만 독자적으로 강조하고 스티브 잡스가 그럴 수 있었던 비판적 정보활용 능력과 교양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가 시대를 선도할 수 있었던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우리의 시대에 적용하려면 누구보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비판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스티브 잡스의 논리적 비판의식과 창의적 발현력을 강조하고 싶으며 그 원동력은 독서로 본다.

한양대 조병영 국어교육과 교수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해력에 해당하는 서구의 리터러시(Literacy) 연구에서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정보와 나의 지식을 통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2022.12.6.)이라고 하여 비판적 읽기의 중요성과 창의적 발현력을 강조하는 견해를 보인다.

어느 시대나 고정관념을 깨고 시대를 선도한 위인은 존재했다. 성실함, 이해력, 창의력 등이 아우러져야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 타인의 성과에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안주하면 누군가의 선도에 열광하고 추수하는 존재에 머물 것이다.

18세기 조선시대의 지식인 박제가의 독서법에서도 “영역에 제한을 두거나 독서 목적이 잘못 설정되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시대 환경에 맞는 지식인의 역할을 찾는 데 실패하게” 됨을 배울 수 있다.(권영식, 2012, 218)

최신의 통계자료인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일 년간 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연간 종합독서율’이 성인이 47.5%로 전년 대비 8.2% 포인트 하락했고

1) 「대학」과 「중용」의 조선 성종 때 가격이 2년 치 쌀값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두 권을 합본한 책을 인터넷에서 7,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학생이 91.4%로 전년 대비 0.7% 포인트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11) 기성 세대가 학생들의 독서율 하락을 비판하고 있으나 실상은 기성세대의 저조한 독서율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심심한 사과’나 ‘사흘’을 두고 벌어진 문해력 논란²⁾에서도 기성 세대의 시각으로 젊은이들의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영어나 IT관련 용어에 대한 기성 세대의 문해력 또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독서가 인생에 유의하다는 답변율이 성인 67.8%, 학생 80.8%로 나옴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독서의 의의만큼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사실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117)

독서율 하락은 전세계적 추세라 하겠지만 독서의 활성화와 양질의 독서를 위한 노력은 포기할 수 없다. 독서는 독자의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최근 확산 중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그 감각적 효과로 인해 이용자의 소극적 태도를 조장하는 면이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성인의 경우 생업, 학생의 경우 학업과 독서를 방해하는 항목 1위를 다룰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121) 독서율이 낮아질수록 독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진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초점을 대학생에 맞추면 현재 대학생의 저조한 독서율과 글쓰기 능력이 충실한 독서 교육에 큰 장애가 됨을 알 수 있다. 국내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조사한 신명선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중 대학 수준에 맞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 전체 2%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미흡한 글쓰기 수준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은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만 보통 수준을 보이고 친교, 설득, 정서표현 등에서는 보통 이하의 수준에 머무른다고 한다.(2022, 33~34)

중등교육의 미흡한 성과는 대부분 수능 준비에 집중하는 입시 부담에서

2) 한자 심심(甚深)을 모르는 젊은이가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에 대해 왜 사과를 심심하다고 하냐고 비난한 일과 고유어인 ‘사흘’을 모르는 이가 3일을 왜 ‘사(4)흘’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비판에 발생한 문해력 논란을 말한다. 민경원·김정연, ‘심심한 사과’, ‘사흘’ 문해력 논란 … 청년만의 문제 아니다, 중앙일보, 2022.12.5. 참조.

원인을 찾는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수능시험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수능 시험은 대학 입학 후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 능력을 지향하는 것이다. 수능시험 준비를 위한 부담이 역설적으로 대학생에게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장애가 되는 현실이 문제다.

II. 대학 독서 교육 현황과 독서보고서 양식 개선의 필요성

대학생의 수준이 미흡한 현실 속에서도 대학 교육은 교과 목표대로 진행 중이다. 독서 교육은 글쓰기 실습을 많이 포함하는 작문 관련 교과를 제외하면 과목별 교육 목표에 따라 관련 도서를 읽고 정보를 얻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책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독서가 지향하는 내용은 전공이나 교양이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대학 독서 교육 전반을 진단한 손대익·장충덕이 박수자의 정리를 재인용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2018, 117)

<표1 대학 독서 교육의 종류>

대학 교육	독서 교육	교양의 지향성	성격
교양 교육	교양 독서	다양한 지식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한다.	수평적 독서 (확산적 독서)
전공 교육	전공 독서	전문적 지식을 학습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수직적 독서 (수렴적 독서)

이 내용을 보면 교과목 성격에 따라 도서 선정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더 효율적인 독서가 되기 위한 교육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독서 교육은 교과목 고유의 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보조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희영은 대학의 ‘독서 에세이 교육’을 주제로 연구하여 비교과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학

교육은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종합적 커뮤니케이터 양성”을 지향하는데 일주일에 2~3시간 교육하는 정규 교육만으로 달성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교과와 비교과 과정의 연계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2016, 514)

비교과 독서 교육의 현황은 손대익과 장충덕의 정리가 유용하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참여한 대학을 중심으로 비교과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43개 대학의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을 보면 ‘릴레이 읽기’부터 ‘체험 기행’까지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시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2018, 118)

<표2 전국 대학의 비교과 독서 교육 현황>

프로그램 유형	대표사례	대학
I 읽기 중심	독서클럽, 릴레이 독서	광운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신대, 목원대, 선문대, 성균관대, 세명대, 순천대, 울산대, 조선대, 중앙대, 충북대, 한림대
II 쓰기 중심	감상문 대회, 백일장, 서평 공모전 인증제	가천대, 건양대, 금오공대, 대전대, 목원대, 부산외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송실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북대, 한림대
III 듣기 중심	북콘서트, 고전/인문 강연	가천대, 부산외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울산대, 한양대
IV 말하기 중심	(독서) 토론대회	가천대, 건양대, 대전대, 동국대, 부산대, 상명대, 순천향대, 송실대, 울산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한밭대, 한양대
V 체험(활동) 중심	독서 캠프, 독서 기행, 독서 골든벨, 독서치료	광운대, 동명대, 배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송실대, 안동대, 울산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독서 교육의 핵심이자 기본은 독후감 이든바 독서보고서를 잘 쓰는 것이라 하겠다. 독서 교육에서 독서보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 학교 독서 교육의 71.1%가 독후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22, 159) 앞서 표2에 정리한 비교과 독서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들을 봐도 충실한 독후감이 대부분의 독서 교육에 필수적이다.

손대익·장충덕은 앞선 연구의 결론에서 독서 교육이 충분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과 둘째 전문적인 튜터링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도가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으며 나아가 효과적인 독서 교육을 위해 예산 지원이 절대적이며 재원 확보와 인력 배치 문제가 장기간 지속적인 교육에 어려움이라고 한다.(2018, 120)

독서 교육에서 튜터링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교과 교육이든 비교과 교육이든 독서 교육에서 작문 전공자의 지도가 효과적이라는 점과 현실적으로 독서 교육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작문 비전공 교수가 독서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어떤 방식이든 독서 교육의 개선을 모색할 때는 독서보고서(독후감)를 중심으로 시행하면서 예산 부담과 작문 비전공 교수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생의 낮은 독서율과 미흡한 글쓰기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이어야 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필자는 수십 년간 대학 과정의 작문 교육을 담당하면서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교육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학습 동기를 일깨우는 데 집중하면서 작문 교육이 지향하는 전통적인 항목들을 자상히 설명한 적도 있고 독서와 글쓰기 실습 기회를 최대한 부여한 적도 있고 실습 기회가 줄어들더라도 세세한 첨삭에 주력한 적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교육목표를 적절히 설정해야 하고 교육방법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부족함을 반성하는 경험이었다.

필자는 기왕의 교육 경험과 오늘날 대학 독서 교육의 현실을 고려하여 특별한 독서보고서 양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독서 교육의 여러 항목 중에서 독서보고서의 개선을 시도하는 이유로는 전공과 교양, 교과와 비교과 독서 교육 구분 없이 기존의 독서 교육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으며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첫째이고 적은 분량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자에게 요구함으로써 글쓰기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둘째 이유다. 더 상세한 사항은 Ⅲ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Ⅲ.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 양식의 구성

1. 교육 목표

독서보고서(독후감)를(을) 작성할 때는 작문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들의 대부분을 공유한다. 일반적인 작문교육에서 좋은 글쓰기를 위한 보편적인 점검 항목은 배제대학교의 ‘글쓰기 자가 체크리스트’³⁾가 잘 보여준다.(이희영,

3) <글쓰기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수정 방법
주제 및 내용	1. 주제의 선명성 -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2. 조사의 충분성 - 글쓰기 화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는가.		
	3. 분석의 타당성 -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분석한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한가.		
	4. 논거의 적절성 -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5. 인용의 정확성 - 자료에 대한 인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인용에 대한 표시들이 바르게 이루어졌는가.		
	6. 글의 참신성 - 글의 주제나 내용, 표현이 참신한가. - 진부한 내용이 있거나 상투적 표현이 있는가.		
글의 구성	1. 글의 통일성 - 단락과 단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가. - 각 단락은 글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2. 글의 개요 - 글의 구성 및 배열이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글의 세부 단락	1. 단락의 통일성 - 글의 단락은 알맞은 소주제문을 가지고 있는가.		
	2. 단락의 응집성 - 단락의 문장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문장의 짜임새 및 어휘 표현	1. 글의 응집성 - 접속어나 지시어가 자연스럽게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가. - 지시어의 지시대상이 없거나 불명확하지 않은가. - 접속어의 논리적 관계가 정확한가.		
	2. 문장의 명료성 - 문장은 글쓴이의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3. 문장의 정확성 - 길고 복잡한 문장이 있지 않은가.		

글의 주제, 내용, 구성, 단락, 문장, 어휘 등이 체크리스트에 정리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글쓰기에 임한다면 좋은 글이 될 것이지만 이 사항을 강의만으로 학습자가 익히게 하기는 힘들다. 학습자에게 실제 글을 쓸 때 충실히 확인하며 작성할 것을 권하는 데 그칠 뿐이다. 첨삭 지도를 할 때도 모든 항목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상기 체크리스트에 언급된 항목들 모두 중요하겠지만 글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각 항목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달라지기도 한다. 필자는 간단한 에세이부터 학술논문까지 작성해야 하는 대학생의 글쓰기에서 ‘주제의 선명성’과 ‘논거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글이든 글쓴이의 의도가 명확한 글이 좋고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정확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논리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논지가 분명하고 탄탄한 글을 쓰는 능력은 대부분의 글쓰기에서 핵심 줄기를 이룬다.

필자가 구상하는 독서보고서의 교육 목표로는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지향하면서 방법론적으로는 논문작성법 중 주석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대학생 모두가 논문을 본업으로 삼게 되지는 않겠지만 대학은 최고 교육기관이므로 대학생이라면 논문의 의의와 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논문은 현재 인류가 도달한 수준을 보여주며 어떤 주제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일정한 형식과 체계에 맞추어 작성한 글이다.

가치 있는 논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성, 논리성, 정확성, 검증가능성(또는 재현성)을 갖춰야 한다.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료 검색, 분석, 주제 선정, 논문 작성법 익히기, 초고 쓰기, 퇴고 등의 단계를 다 이행해야 하나 모두 소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학습자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이상원, 2011, 85~86) 논문작성법은 단기간에 교육하기 힘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주어 서술의 관계는 명확한가. - 중의적 문장, 모호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 외국어 번역 투의 문장은 없는가. 		
--	--	--	--

“학술 논문은 해당 학문 분야가 요구하는 논문의 체계와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엄격한 글쓰기”(김미선 외, 2015, 194)이므로 그 양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주석은 다른 사람이 검증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석 다는 법을 새로운 독서보고서 양식에 적용한 이유는 주석이 바로 논거를 정확히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면서 주석 다는 법도 익힐 수 있다. 필자의 교육 경험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주석의 세세한 형식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토로했고 시험이나 기말 리포트 정도로 실습하는 것으로는 교육 성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교과든 비교과든 독서 교육에서는 독서보고서를 작성할 기회가 논문작성법 교육 시 논문을 작성하는 기회보다 몇 배 늘어날 것이므로 주석을 다는 실습 기회를 학습자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2.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 양식(안)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안한 독서보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독서보고서	
작성자 : _____	
	내 용
1	서지사항(저자, 책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2	책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그대로 베껴 쓰시오.(분량은 1~2 단락)
3	2번 답의 근거를 책 내용에서 3개 이상 찾아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주석의 직간접 인용법을 활용할 것)
4	책의 제목을 자기만의 표현으로 달리 쓰시오.

이 보고서는 분량을 A4 용지 한 장으로 제한하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자의 글쓰기 부담을 줄이면서 간결하고 정확한 글쓰기를 유도한다. 글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학습자의 경우 글을 시작할 때 느끼는 막연함을 힘들어하는 성향이 있다. 글의 구도나 개요를 작성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라 하겠는데 이 보고서 양식은 그러한 고민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 작성 분량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한쪽만 작성하면 된다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분량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거부감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각 문항의 작성법을 공개함으로써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특징이다. 학습자는 한쪽밖에 안 되는 보고서를 다시 4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간단히 기술하면 된다. 물론 군더더기 없이 간단히 표현하는 부담은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간단명료한 글을 작성하는 훈련은 장차 긴 글을 정리하거나 작성할 때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채석용, 2011, 71)

첫째 문항은 해당 도서의 서지사항을 묻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읽은 책의 저자와 제목, 출판사, 출판 시기를 확인하여 기입해야 한다. 지식인으로서 어떤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거로 제시할 때 명확히 밝혀야 하기에 고안한 문항이다.

둘째 문항은 책을 다 읽은 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묻는 것이다. 학습자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직접 인용 방식으로 그대로 베껴 써야 하며 분량은 2개 단락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학습자의 선택한 부분은 학습자가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책의 주제로 파악한 것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학습자 나름의 감상과 밀접한 내용일 수도 있다. 학습자는 이 문항의 답을 위해서 책의 내용 전체를 정리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항은 둘째 문항에서 인용한 부분을 선택한 근거를 묻는 것이다. 학습자는 왜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본문에서 근거를 세 개 이상 찾아 설명해야 한다. 이때 논문의 주석을 다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직간접 인용 방식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3자가 학습자의 답변 내용만을 보고도 작성자의 논리를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석을 다는 방법에는 각주와 후주, 내주 등이 있으나 이 보고서 양식에서는 내주 방식을 적용한다. 학습자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결정하고 직접 인용 방식으로 원문 그대로 보여줄 것인지 간접 인용 방식으로 그 부분을 참조한

것임을 언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직접 인용 방식을 적용할 경우 둘째 문항 답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를 기술 하면서 본문의 해당 내용을 인용부호(“”)로 구분하여 옮겨 적고 바로 뒤에 이어서 괄호 안에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쪽번호’를 기입한다. 간접 인용 방식을 쓸 경우에는 앞선 경우와 같은 이유를 기술하고 그 문장 맨 뒤에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쪽번호’를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한다. 단 간접 인용한 것이므로 쪽번호 뒤에 “참조”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간접 인용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기술되지 않았지만 제3자가 해당 부분을 읽어보면 작성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논문작성법상에는 같은 자료가 반복될 때 반복되는 정보를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나 독서보고서 양식을 작성할 때는 예외적으로 반복해서 표기함으로써 실습 기회로 활용한다. 논문작성법은 게재 기관에 따라 별도의 형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어떤 순서에 따라 표기하는지는 대동소이하므로 이러한 연습을 통해 학습한 결과 어떤 기관의 형식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근거를 본문의 내용 중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다소 방지할 수 있다. 챗GPT나 BARD와 같은 프로그램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중이지만 표절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연구 윤리적 문제를 낳거나 정치적 답변으로 거짓 정보를 생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2023년 5월 11일 구글에서 공개한 인공지능 바드의 경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한글로 물었을 때는 한국 영토라고 했고 일본어로 물었을 때는 분쟁 지역이라고 했을 정도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SBS·MBC, 국제뉴스, 2023.5.11.)

셋째 문항의 답변 내용은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그 내용만 보고도 작성자의 논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독서 토론회를 했을 때 장점으로 작용한다.

독서 토론회 참석자는 공통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해야 하지

만 실제적으로는 학습자에게 도서 선택권을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여러 책을 대상으로 쓴 보고서를 가지고 같은 시공간에 모여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학급 전체의 일부로 제한된다. 하지만 개선 독서보고서를 이용하여 토론회를 진행하면 셋째 문항의 답변 내용만 보면서도 작성자의 논리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문항은 책의 제목을 학습자 나름의 표현으로 달리 써보라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이해한 책의 주제와 의미를 제3자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얻는다. 글쓰기에서 간단한 창작 실습 효과도 있으므로 평가자는 학습자의 종합적인 이해도와 창의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3.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 양식(안) 활용법

한 쪽짜리 독서보고서를 활용한 권장 교육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습자에게 양식과 작성 방법을 미리 공지한다. 양식은 문서작성 파일로 한정하고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여 최소한의 분량을 확보한다.

② 읽을 책을 선정한다. 이때 전공, 교양, 교과, 비교과 여부에 따라 교육자와 학습자가 소통하면서 결정한다. 학습자의 독서 동기를 유도하기 위해 학습자의 선택을 우선시 하여 한 학급에 복수의 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다.

③ 작성한 독서보고서를 복사해서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작성자가 먼저 발표하고 동료가 평을 하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④ 발표자는 교수와 동료의 평가를 반영하여 자신의 논리 수준과 창의력을 진단하고 보다 발전적인 독서를 지향한다.

⑤ 교수는 작성 지침을 평가 지침으로 활용하고 토론 진행상을 함께 반영하여 보고서 수준을 평가한다.

⑥ 1주일에 한 번씩 토론회를 진행하고 개인이 독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2주에 한 번 정도로 하면 학습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비교적 충실한

독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대학생의 낮은 독서율과 미흡한 글쓰기 수준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독서보고서 양식을 구상해보았다. 독서의 고유한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학생의 현실적인 수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쪽짜리 간단한 양식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작성법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기존의 독서 교육을 대체하거나 획기적인 개선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독서 교육이 포함하고 있는 독서보고서 양식을 개선하여 기존 독서 교육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조금 높이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글쓰기는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깨달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독서 과제로서 보고서를 쓰는 일은 동기 부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습자가 시작하는 단계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이 보고서 양식을 따라 작성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필수 자질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고서 양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독서 교육에 대부분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서 교육의 기본 요건이 독후감(독서보고서)이므로 이 보고서 양식을 적용하여 교육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둘째 대학 독서 교육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예산과 인력 지원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교육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작문 비전공 교수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 지원 문제의 부분적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간단한 글쓰기를 반복적으로 실습함으로써 큰 부담 없이 논리적 글쓰기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다.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은 대부분의 글쓰기

에 필수 자질이다.

넷째 학습자에게 검증 가능한 근거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세우는 연습 기회를 비교적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셋째 문항을 작성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는 연습, 자신의 논리를 정확한 근거를 통해 입증하는 연습, 타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대학의 독서 교육을 작문 전공 교수만으로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작문 비전공 교수의 평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문항별 작성 방법은 한편으로 학습자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고 논리적 글쓰기와 정확한 근거를 대는 연습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공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관식 평가나 세세한 첨삭에 부담을 느끼는 작문 비전공 교수의 독서 지도에 큰 도움이 된다.

여섯째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려되는 연구 윤리적 문제와 거짓 정보의 문제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정확한 근거를 통해 주석을 다는 연습은 혼란한 시대에 중심을 잡아주는 힘을 제공할 것이다.

일곱째 3번 문항의 답을 활용한 토론회는 제3자의 평가에 도움을 줌으로써 독서토론회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불성실한 독서를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전 독서에 소홀한 동료의 참여를 어느 정도 유도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

토론을 위해서는 책을 선정하고 공통적으로 읽어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의 상황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독서토론회의 대상 도서를 선정할 때도 평가자는 교육 목적을 우선으로 할 것이고 학습자는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참여도를 달리할 것이다.

여덟째 간단한 보고서양식을 작성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떨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홉째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자료를 자기주도적으로 찾아 정확한 정보를 마련하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상의 장점들은 단순히 가능성에 기대어 과장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으나 독서와 글쓰기는 인간의 상상력을 원료로 하므로 어떤 계기가 정당하다면 그 결과의 한계도 상상력이 가능성을 공유할 것이다.

한 쪽짜리 간단한 보고서 양식일 뿐이지만 작문과 논문의 중요한 씨앗을 함양하는 것이므로 수십 년 교육 경험과 대학생의 현재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기존 독서 교육에 큰 무리 없이 반영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독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동훈, 2023,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과 국어교육의 대응」, 『국어문학』, 제82호, 469-496.
- 권영식, 2012,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다산의 독서전략』, 글라이더.
- 김미선 외, 2015,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중앙대학교출판부.
- 민경원·김정연, 2022, 「‘심심한 사과’, ‘사흘’ 문해력 논란 … 청년만의 문제 아니다」, 『중앙일보』, 2022. 12. 5.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박수자, 2004, 「대학 독서 교육의 조명」, 『독서연구』, 제12호, 한국독서학회, 31-52.
- 손대익·장충덕, 2018, 「대학의 독서 교육 현황과 과제-충북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제52집, 우리말학회, 113-135.
- 신명선, 2022, 「국내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과 학력 격차」, 『國語教育學研究』, 제57집, 5-43.
- 이상원, 2011, 『서울대 인문학 글쓰기 강의』, 황소자리.
- 이희영, 2016, 「대학 교양교육 현장에서의 ‘독서에세이 쓰기’ 프로그램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0권 제4호, 513-541.
- 조병영, 2022, 「문해력의 본질을 생각하고 활용하는 것」, 『한국일보』, 2022.10.6.
- 채석용, 2011,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법』, 소울메이트.

■ Abstract

A Study on the One-Page Report Form for University Reading Education

Lim, Dohan
(R.O.K.Air-Force Acade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 reading report form that considers the writing level and reading status of university students.

This report consists of four questions.

The first is bibliography.

The second is to copy the most impressive part of the book.

The third is to find and explain more than three reasons why I read impressively in the book.

The fourth, changing the title of a book to your own expression.

This form has a small amount and provides specific instructions on how to write, so even learners who are not confident in writing can easily participate.

Learners can practice expressing logically based on accurate evidence and how to annotate.

Logical writing and annotation skills are essential for university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major, and are also essential when writing reading reports.

Since the writing method for each question can be used as an evaluation criterion, it lowers the evaluation burden of non-professional professors and helps with objective evaluation.

Education using this report cannot replace existing reading programs, but education at the current level of learners will be a significant supplementary

measure without much change in existing education.

Keyword ● One-Page Report Form, Reading Report, Logical Writing, Annotate

▮ 논문투고일 : 2023. 06. 12. ▮ 심사완료일 : 2023. 06. 18. ▮ 게재확정일 : 2023. 06. 19.

『리버럴아츠』(*Liberal Arts*)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규정제정일: 2021년 7월 16일

제1조(편집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

- 1)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Liberal Arts*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수록될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 4)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 5)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는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 7) 편집위원은 학문적인 조예가 깊고, 연구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연구자 가운데 전문성, 대내외적 인지도, 경력사항, 연구실적, 연구소기여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소장과 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 8)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9)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기타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 1) 편집위원장은 *Liberal Arts*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학술지와 관련하여 제반 대외 업무를 수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투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공분야에 맞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회의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 2회 이상 학술지의 편집방향과 특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특집호를 기획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계획을 수립한다.

제3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 1) [접수 및 관리]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2) [심사 송부]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blind test) 인비로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의 저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 위원회에 송부한다.
-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그 논문에 적합한 전공분야 3인의 편집위원으로 연구 기여도,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편집위원 중에 해당 분야 책임자가 없을 시에는 다른 회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4) [심사 일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심사결과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5)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아래의 심사 평가서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자는 평가결과를 연구소의 심사결과서 양식에 따라 서술식으로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판정한 후 논문심사결과서를 캡스에 제출한다. ‘게재 가’ 판정이 아닐 경우 그 이유나 수정-보완 지시 및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평가 항목	기준	배점				
		15	12	9	6	3
연구 주제의 창의성	15	15	12	9	6	3
연구 내용의 충실성	15	15	12	9	6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15	15	12	9	6	3
논리 전개의 일관성	15	15	12	9	6	3
초록의 완성도	10	10	8	6	4	2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10	10	8	6	4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5	4	3	2	1
관련 자료의 적절성	5	5	4	3	2	1
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성	5	5	4	3	2	1
원고 형식의 적합성	5	5	4	3	2	1

- 6) [게재 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편집위원회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는 판정표에 따른다.

<심사판정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판정
1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2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3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4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5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6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7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8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9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10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11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1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위의 심사판정표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표에 제시되지 않은 판정이 나오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7) [심사 결정 및 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심사자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첨부한다.

8)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적어 논문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 혹은 재심을 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 위원 1인이 참여하고 2인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한다.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9) [심사결과 통보] 접수된 모든 논문은 연구소 일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유선이나 전자우편으로 게재 확정을 통보하고, 논문의 집필자가 학술지 발행 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편집위원장은 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집필자에게 <게재 불가 통

지서>를 발송한다. ‘수정 후 게재가’나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일시를 적시하여 수정제의를 발송한다.

- 10)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논문 제출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⅔이상의 동의를 얻는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 11) [수정제의 수용원칙] 논문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를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론문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요구도 없는 경우와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리버럴아츠』(*Liberal Arts*) 투고 규정

규정제정일: 2021년 7월 16일

제1조(규정)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학술지 *Liberal Arts*의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2조(발간 일정)

1. 학회지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발간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3. 마감 시한을 변경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3조(투고 자격)

1. 논문 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교양교육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 박사 과정 이상의 연구자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생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연구소장의 결정에 따라 투고할 수 있다.
2. 원고는 순수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지면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3. 원고는 동일 내용으로 타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제4조(투고 방법)

1. 논문의 투고는 연구소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메일(E-mail)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 형식)

1.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원고작성 요령’을 따라야 하며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논문도 가능하다.
2. 원고 작성 원칙에 맞지 않거나 논문의 구성 요소가 미비한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3. 국문초록의 경우 400~600자, 3~4개 문단으로 작성되며 5개 내외의 국문 주제어를 제시하여 논문과 관련된 주제들을 통해 논문의 중심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4. 학문의 세계화를 지향하여 논문의 초록은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 작성하여 함께 게재하고 영문초록은 일반적으로 300단어 내외로 구성되고 있고 주제어도 5개 내외로 한다.

제6조(개인 정보)

1.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2.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제7조(접수 제한)

1. 수정재심 혹은 반려 논문의 재투고 시에는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 후 투고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사항 반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거부나 반려될 수 있다.

제8조(권리 양도)

1.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 최종 수정된 원고를 송부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 첨부함으로써 홈페이지 상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투고시스템을 통한 전자 서명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학회지의 발행인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

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리버럴아츠』(Liberal Arts) 원고 작성 방법

I. 원고 형식

1. 원고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 문헌, 초록과 키워드를 합하여 학회에서 정한 편집용지(아래 II. 3 참조)의 25쪽 이내로 한다. 25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쪽 당 1만원의 인쇄비를 본인 부담한다. 단, 최대 분량은 35쪽을 초과할 수 없다.
2. 원고 분량은 아래와 같은 초기(default) 지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3. 원고 기본값

1) 편집 용지(F7)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 폭: 152 길이: 225	
용지 방향	세로	한쪽
용지 여백	위쪽: 25.5	머리말: 13
왼쪽: 22.5	제본: 0	
오른쪽: 22.5		
아래: 28.5	꼬리말: 0	

2) 원고 기본값(본문 스타일) *들여쓰기 -26은 내어쓰기 26을 의미함.

	문단모양					글자모양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줄 간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자간	크기	글자 속성	
논문 제목			160	중앙	0	국문 영문	신명조	100	-10	15	볼드
논문 부제			166	중앙	0	국문 영문	신명조	95	-8	10.4	보통

		문단모양					글자모양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줄 간격	정렬	들여 쓰기		글꼴	장평	자간	크기
필자: 이름			130	중앙	0	국문	신명조	90	-8	11	보통
						영문					
필자: 소속			130	중앙	0	국문	신명조	94	-7	8	보통
						영문					
국문 초록			160	양쪽			신명조	100	-5	9	보통
본문	내용		166	양쪽	10	국문	신명조	95	-8	10.4	보통
						영문					
	대제목		160	양쪽	0	국문	신명조	97	-2	12.7	볼드
						영문					
	중제목		160	양쪽	10	국문	신명조	90	-7	10.5	보통
						영문					
소제목		172	양쪽	0	국문	신명조	92	-8	10	보통	
					영문						
인용문	15	15	140	양쪽	10	국문	신명조	95	-5	10	보통
						영문					
각주			140	양쪽	0	국문	신명조	95	-7	8.3	보통
						영문					
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제목		160	중앙	0		신명조	100	-5	11	볼드
	참고 문헌 내용		145	양쪽	-26	국문	신명조	100	-5	9.2	보통
					영문						
논문 초록	Abstract		160	중앙			신명조	100	-5	12	볼드
	논문 제목		160	양쪽		국문	신명조	100	-5	14	볼드
						영문					
	논문 부제		160	양쪽		국문	신명조	100	-5	12	보통
						영문					
필자: 이름/소속		160	중앙		국문	신명조	100	-5	11	보통	
					영문						
내용		160	양쪽		국문	신명조	100	-5	10.3	보통	
					영문						
주제어 / 필자의 이메일			160	양쪽		국문	신명조	100	-5	9	보통
						영문					

Ⅱ. 원고 구성

1. 초록

1) 국문 초록

- 논문의 제목과 필자명을 기입하고 3행을 띄운 다음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국문 초록과 주제어를 쓴다. 국문 초록은 15~20행으로 작성한다. 주제어는 5개 내외로 제시한다.
- 제목 다음에 위치시킨다.

2) 영문 초록

- 영문 제목과 초록 및 주제어는 국문 제목과 초록 및 주제어에 준하며, 분량도 동일하다.
- 논문 집필자의 성명은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성명 아래 소속을 표기한다.
- 참고 문헌 목록 다음에 위치시킨다.

2. 제목

- 제목과 부제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을 바꾸어 줄표(-)로 구분한다.

3. 필자명(소속, 직위, 이메일)

- 1) 필자명은 제목 아래에 넣으며, 필자의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는 각주로 처리한다.
- 2) 공동 논문의 경우, 제1저자명, 제2저자명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 3) 공동 논문의 경우, 각주에서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을 구분하여 소속 앞에 표기한다.
 - 예 1 : (단독 논문의 경우) 한국대학교, 교수, han@hankook.ac.kr

- 예 2 : (공동 논문의 경우)

(1) 제1저자, 한국대학교, 교수, han@hankook.ac.kr (2) 교신저자, 한국대학교, 강사, kang@hankook.ac.kr (3) 공동저자, 한국대학교, 연구원, min@hankook.ac.kr

4. 본문

1) 한글-외국어 병기

- 본문은 순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와 외국어는 의미전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첫 번째 한글 옆 괄호 속에 기재한다.

2) 목차

- 목차의 표기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제목별 예시: 대제목: 로마자 I, II, 중제목: 1, 2, 소제목: 1), 2)

- 전체 항목 예시: I, 1, 1), (1), 가

3) 인용

- 2행 이하의 짧은 인용은 본문 안에 기술하고, 3행 이상의 인용은 본문에서 분리하여 기술한다.

- 본문에서 구별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문의 위아래 1행 띄우고, 다음표는 생략한다.

4) 인용 출처 표기

(1) 모든 인용의 출전 표기는 본문에서 기술하는 내각주로 처리하며, 내각주는 괄호 안에 저자, 출판 연도, 쪽수만을 표기한다.

- 예 1: (홍길동, 2014, 123)

- 예 2: (홍길동·김길동, 2014, 123)

- 예 3: (홍길동, 2014, 123; 김길동, 2016, 235)

- 예 4: (츨스키·할레, 2020, 235)

- 예 5: (Chomsky & Halle, 1968, 23)

(2) 본문에서 구별된 인용문의 출전 표기도 인용문 마지막에 내각주로 처리한다.

(3)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각주로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본문에 내각주 처리를 하고, 각주 번호를 붙인 후 관련 설명만 각주에 기술한다. 각주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다.

5) 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절한 위치에 <표 1>, <그림 1>의 형식으로 순서대로 제시한다.

5. 참고 문헌

- 1)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 제목을 쓴 후, 1행 띄우고 시작한다.
- 2) 참고 문헌 목록은 본문에서 인용 또는 언급한 것으로 제한한다.
- 3) 원전과 번역서를 구분하지 않고 국문 문헌, 외국 문헌 순서로 배열하되, 외국 문헌은 동양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국문 문헌 및 동양어 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외국 문헌은 저자명(성)의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 4) 논문이나 저널, 단행본 안에 들어 있는 글의 경우, 게재된 쪽수를 밝힌다.(아래 예 참조)
- 5) 저자명, 발행 연도, 저서 혹은 논문 제목 순으로 표기하고, 쉼표로 구분한다.(아래 예 참조)

· 참고문헌 작성의 예

- 예 1: 홍길동, 2001, 「논리적 사고와 근대성의 한계」, 한반도(편), 『생

- 각의 숲과 표현의 나무』, 새봄.
- 예 2: 홍길동·김길동, 2005,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논리적 글쓰기」, 『사고와 표현』 제5집, 3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10-230.
 - 예 3: 홍길동, 2008, 「종교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논리성의 의미」,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 예 4: 홍길동, 2009, 「상상력에 권력을!」, 『표상일보』, 2006. 02.10.
 - 예 5: 코프만, 헬무트, 2011, 홍길동 역, 『수사와 설득』, 표현문고.
 - 예 6: Chomsky, N. & Halle, M.,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per & Row.
 - 예 7: Panitch, Leo, 2012, “Growth Industr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31, no.2, 128-146.
 - 예8: Winkler, Jack T., 2013, “The Corporatist Economy”, Richard Scase (ed.), *Industrial Society*, London.
 - 예 9: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검색일: 2002.01.15).

Ⅲ. 저자의 익명성 처리

1. 논문 투고자는 저자의 익명성을 지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심사용 원고의 경우 겉표지 외에는 저자 성명, 소속 기관명, 인터넷 주소, 동료에 대한 감사의 글 등 저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투고자 자신이 이전에 출판한 문헌을 심사용 원고의 각주나 참고 문헌에 인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며, 논의의 전개상 그 인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 이름을 ‘OOO’으로 처리한다.

3. 논문 투고 일 년 이내의 시점에 공식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를 이전과 동일한 제목으로 제출할 경우 발표 당시의 학술회의명과 패널리스트(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전원) 명단을 논문 접수 시에 알려야 한다. 해당 정보의 누락으로 동일 패널리스트가 논문을 심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결과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리버럴아츠』(*Liberal Arts*) 연구윤리규정

규정제정일: 2021년 7월 16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의 학술지인 *Liberal Arts*의 투고 및 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지는 학술연구 저작들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고 게재한다. 이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 저자뿐 아니라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연구윤리규정을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 1) (저자의 의무)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논문투고 전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필독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이행서”에 서명해야 한다.
-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과정과 결과물에서 행해지는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모든 부정행위를 지칭한다. 아래의 각 부정행위의 정의는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 ①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모든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②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③ 변조: 연구 자료,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④ 자기표절: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 및 연구결과물(비학술단체 발간물, 학술대회 발표문, 연구용역보고서 등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붙지 않는 발표물은 제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 및 연구결과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 및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⑥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⑦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⑧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가. 연구자는 논문 투고 전 반드시 학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나. 연구자는 특수 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특수 관계인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연구자로부터 확보한다.

라. 학회는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 위원장, 편집위원장, 편집장으로 구성된 별도의 내부 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마. 학회는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확정시 학회 연구윤리 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바.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 명의로 특수 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해당 특수 관계인의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⑨ 기타: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3) (저자 인정 및 책임) 저자는 자신이 행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① 저자 순서: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가 여러 명일 때 저자의 표기 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지위와 소속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다.

② 저자 책임: 저자로 명기된 연구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논문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 ③ 저자 신뢰성: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4) (중복 출판 금지 및 부분 중복 게재)

- ① 중복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도 본 학회지 『리버럴아츠』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 ② 부분 중복 게재: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5조 1항에 의거 본 학회지 『리버럴아츠』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다른 학회지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확대·발전이 불가피하여 부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다른 학회지에 게재 및 출판할 수 있으나 부분 중복 게재한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명기한다. “본 연구는 『리버럴아츠』 00권 00호 00-00쪽에 게재되었던 논문으로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원문을 부분 인용 혹은 부분 수정·보완하여 게재함을 밝힌다.” 또한 학위논문의 축약본 혹은 부분 중복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도 부분 중복의 내용을 논문의 첫 쪽 하단에 명기하도록 한다.

제3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 1)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2)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 3) 편집위원(회)은 학술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한다.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간의 평가결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최종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는 배제하려 노력한다. 다만, 소외 학문 분야나 주제 등 3인 전체를 비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로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 중심으로 회의를 거쳐 1명까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5) 편집위원(회)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결과와 관련한 문제와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 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 1)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심사를 심사 규정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2-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의 공정성) 심사자로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저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인 관점이나 학술적 경향에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3) (부정행위 통보)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4)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학술적 독립성을 존중해

야 하며, 심사평가서의 의견란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학술적 견해와 판단을 상세히 기술하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수정요구 시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과 어법을 사용해야 하며, 학술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한다.

- 5) (논문내용 및 심사결과의 비공개)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 및 심사에 대한 모든 절차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투고된 논문이 게재 확정되어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심사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의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에서 호선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

1) (조사위원회의 설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과 외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활동을 시작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해산한다.
-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으로 한다.
- ④ 학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2) (조사위원의 의무와 자격정지)

- ①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은 심의 안전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

지 않아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은 자신과 사안 사이에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조사위원의 연구 결과 혹은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해당 심의 안건의 조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3) (연구윤리위원 제척)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되거나,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4) (심의 요청)

- ①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 행위가 본 학회 윤리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5) (제보자 및 대상 회원의 권리보호)

- ①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문제 제기가 허위이며 대상 회원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 훼손이라 판단될 경우 향후 학회 활동을 제한하는 등 허위 제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대상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⑤ 학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대상 회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6) (심의 절차)

- ①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 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결과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심의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대상 회원에게 연구 윤리 저촉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⑥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대상 회원 또는 제보자의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며 조사위원회는 해산한다.
- ⑧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7)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 ① 윤리규정 위반 내용
- ② 심의 절차
- ③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④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8) (징계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 ① 경고 및 논문 철회
- ② 회원 자격 정지 혹은 박탈(5년 이내 회원 가입 금지)
- ③ 향후 5년간 논문투고 금지
- ④ 출판된 논문 무효 처리

9) (후속조치)

- ①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확정되면 조속히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② 조치 후 그 결과는 인사비밀 문서화하여 보존한다.
- ③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결과조치를 통보한다.

10) (윤리 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행정사항)

- ①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정윤길(동국대)

◇ 편집 위원 :

남근우(동국대), 남진숙(동국대), 박진희(동국대), 박현희(서울대), 성백용(한남대)
신용인(제주대), 윤승준(단국대), 윤혜경(동의대), 이철호(대구교대), 임명희(공주교대)
장수철(연세대), 전종운(전주대), 조혜경(대구대), 최훈(강원대)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장 : 이원석(동국대)

◇ 연구윤리 위원 :

김덕수(서울대), 김성숙(연세대), 김제욱(한서대), 하병학(가톨릭대)

리버럴아츠 제3권 1호

발행일 : 2023년 6월 30일

발행인 : 손운락

발행처 :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02)2290-1630

홈페이지 <https://dharma.dongguk.edu>

전자우편 liberalarts.kr@gmail.com

인쇄처 : 주호기획

ISSN 2799-7790